

2020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순례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0. 10. 27.(화), 14:00 ~ 17:4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 ▣ 출석위원 : 신안준(위원장), 강동진, 권기혁,
김연희, 김종헌, 목수현, 안창모
오용섭, 윤균, 추미경(이상 10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현상변경	(공 개)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호텔 신축(계획변경)	(공 개)
3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4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공 개)

【검토사항】

5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복원정비계획	(공 개)
6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7	「전남대학교 용봉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8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보고사항】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	-------

1.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발굴지 정비방안 및 창고를 보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발굴지 정비방안 및 창고를 보수하고자 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라남도 목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국가등록문화재 제786호, '20.6.24. 등록)
 - 소재지 : 전라남도 목포시 향동 6-8번지 외 1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전라남도 목포시 향동 6-8번지 외 1
 - 세부내용 : 본관 터 발굴지 정비 방안 및 창고 2동 보수
 - 본관 터 발굴지 정비방안
 - 본관 터 면적 : 1,848.60㎡ / 발굴지 정비면적 : 550.00㎡
 - 정비방법 : 발굴된 유구 노출전시(창고 보수 시 나온 벽돌 이용), 배수시설 및 난간 설치
 - 창고 2동 보수내용

구분	창고 A동	창고 B동
지붕	석면골슬레이트 → 징크 패널	칼라강판 → 징크 패널
벽체	개구부 신규 설치(41.13㎡) / 내부 조적벽 보강(UHPC 패널)	개구부 신규 설치(38.38㎡) / 내부 조적벽 보강(UHPC 패널)
지붕트러스	철골트러스 및 철골기둥보강 목재 보존처리	철골 보강 및 목재 보존처리
테두리보	철근 방청 처리 및 보존처리	철근 방청 처리 및 보존처리
창호	창호 보수 10개소 창호 주변 모르타르 보수	창호 보수 10개소 창호 주변 모르타르 보수
바닥	시멘트모르타르 위 에폭시 도포	시멘트모르타르 위 에폭시 도포

라.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0.10.21.)

- 구 목포세관 본관 터에서 발굴된 기초부 유적은 과거 목포세관의 도면, 사진 등 고증자료와 일치하므로, 1908년 신축된 구 목포세관 본관의 유적으로 판단됨.
- 발굴된 기초부 유적은 본래 위치에서 발굴된 상태 그대로 노출시키고 후면부의 건축부재 야외전시장, 창고 B동의 목포세관 역사관과 함께 연계하여 보존, 전시할 필요가 있음.
- 구 목포세관 본관 기초부 유적의 후면부에서 일부 중첩되어 발굴된 목포세관 신청사 및 국가정보원 청사의 기초부 유적도 구 목포세관 본관 기초부 유적 보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굴하여 함께 보존이 필요함.
- 창고 A, B동은 활용을 위한 내부계획에서도 창고의 원형과 특성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창고 A동은 조리시설이 대규모로 설치될 경우 건물 보존을 위해 화재예방, 배기, 환기 등의 설비 설치가 필요함.

마. 참고자료

(1) 구 목포세관 본관 터 및 창고 자문의견(목포시청 실시)

○ 문화재전문위원 ○○○('20.10.19.)

- 20세기 중반에 건립된 2동의 창고와 최근 발굴을 통해 드러난 구 목포세관 본관의 유구로 구성된 문화재로 건축물에 대한 보수 및 발굴 유구에 대한 보존 계획을 필요로 함

[세관 창고]

- 2동의 세관 창고는 건축물 자체로서 보존 가치가 높기 보다는 구 목포세관 본관 유구를 포함한 주변 영역이 근대 항구로서 목포의 역사가 시작된 공간임을 기억하기 위한 지원 시설로서 활용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내부 공간 활용을 위해 기존 조적 벽체와 지붕트러스 구조에 대한 적절한 구조적 보강이 필요함. 관람객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진 보강 등 현실적인 법규에 따른 보강과 사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구조나 형태의 변형이 불가피 할 수 있음
-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기존 구조나 형태의 변형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함

[구 목포세관 본관 유구]

- 최근 발굴을 통해 지표면 아래의 구 목포세관 본관의 하부 구조와 부분적인 바닥 구조가 드러남
- 발굴을 통해 드러난 유구를 보존하고 방문객의 관람을 위한 종합적인 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해당 유구에 적합한 보존 및 전시 방법이 선정되어야 함

- 지붕이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노출 전시로 계획할 경우 외부 노출에도 유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구 자체에 대한 보강 계획 및 배수 계획 등이 반영되어야 함
- 구 목포 세관 본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건립된 복수의 유구가 공존하기 때문에 관람객이 해당 부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전시 계획이 필요함
- 공사 진행 과정에서 관계전문가의 현장 자문을 통해 구 목포세관 본관 터의 역사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유구의 보강과 전시 및 관람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본관터 발굴지 정비 및 창고2동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것

○ 출석 10명 / 조건부가결 7명, 부결 3명

2.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호텔 신축(계획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사적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에서 호텔 신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환구단」 및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에서 호텔 신축을 목적으로 기 현상 변경 허가('18.12.07) 한 내용과 관련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0년 제8차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결과('20.9.22.) : **보류**

[보류사유]

- 소공로변 입면 벽체 해체 철거의 필요성에 대한 기술적, 구조적 검토 자료 보완 제시
- 원형보존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자료 보완 제시

[현상변경 허가내용]

- 호텔 신축
 - 규모 : 지하7층, 지상27층(높이 90m), 건축면적 4,169.86㎡, 연면적 99,987.98㎡
- 허가조건
 - 공사 착공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문화재(환구단) 구조안전 계측을 시행하고 동 계측 결과에 대한 구조안전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월단위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와 관련 계측기는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1개소는 변위에 취약한 내부의 상부지점에 설치
 - '대관정 터'유구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유구 보존 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2018년 제4회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심의안(1안)으로 함
 - 소공로 근대건축물(유구)을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 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성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 할 것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 보호에 유념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
- 허가일자: 2018.12.07.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주)부영주택

(2) 대상문화재명 : 환구단 (사적 제157호, '67.7.15. 지정)

서울 한국은행 본관 (사적 제280호, '81.9.25. 지정)

○ 소재지 : (환구단)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14

(서울 한국은행 본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가 110

(3) 신청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12-9 일원

※ 현상변경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원지형 보존)) - 환구단

※ 현상변경 허용기준 : 2구역(개별심의), 3구역(서울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서울 한국은행 본관

○ 사업내용 : 호텔 신축

- 기허가내용 변경사항

· 건축면적 : 4,169.86㎡ → 4,164.65㎡(감 5.21㎡)

· 연 면 적 : 99,987.98㎡ → 98,534.49㎡(감 1,453.49㎡)

· 층 수 : 지하7층, 지상27층(변경없음)

· 최고높이 : 90m(높이) → 99.50m(최고높이)

- 주요변경내용

·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방법 변경

* 3~5번 건물 : 전면 벽체 보존 →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 6, 7번 건물 : 1~6층 전면 벽체 보존, 7~12층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 1~12층 전면 벽체 해체 후 복원

라. 참고자료

(1) 자문회의 의견서(신청인 제출)

○ 자문의견 1차(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6.11.)

-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과 관련된 변경은 문화재청 심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역사적 건물로서의 가치와 진정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보존대상 3번 건물은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중 가장 역사성이 깊고 보존가치가 높은 건물이므로, 기존 파사드와 타일, 창호 등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보수, 보강 기법을 적극 고려한다.

- 보존대상 4, 5, 6, 7번 건물 파사드는 기 승인된 보존방식의 문제점, 새로운 대안의 적합성과 진정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와 구체적 계획이 제시된 후 변경을 고려한다.

- 소공동 근현대건축물 파사드 보존방식의 변경은 1층 필로티에 조성되는 스트리트 뮤지엄(Street Museum)과의 상호연계 및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한다.
- 자문의견 2차(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8.25.)
 - 1차 자문회의 의견에 따른 각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입면 및 구조체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해체복원수리의 필요성이 인정됨
- 자문의견 3차(前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0.08.)
 - 3번 건물의 조적조 부분('29년도 건축부분)과 증축부분('37년, '63년 증축)의 구조 형식이 달라서 전체 외벽의 보존은 안전상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3번 건물의 조적조 부분(1~3층) 외벽 존치가 가능한지, 신축 부분과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구조기술사의 설계안(또는 의견)을 제시하기 바람
 - 기타 4~7번 건물의 복원은 기존 자문회의 의견과 같이 해체 복원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견 4차(前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20.10.21.)
 - 한국공간구조학회에 의뢰한 검토 연구보고서는 기존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검토 내용과 일관된 것으로 판단되며, 3번 조적조의 경우 전면 파사드의 존치 및 파사드의 부분 해체 후 신생 구조체와의 연결은 앵커 연결부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연결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 따라서 재료 및 기존 건물의 취약과 열화상태로 파사드 전면의 외장만을 복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됨
 - 기타 4~7번 건물의 복원은 기존 자문회의 의견과 같이 해체, 복원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추진경과

- ('15.9.22.) '15년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 ('17.09.26.) : '17년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미치는 영향여부 검토를 위한 보완자료를 제출받아 재검토
- ('17.11.28.) '17년 제8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지하 굴착공사 등에 따라 '환구단'에 미치는 영향 검토를 위한 객관적 자료 검증 필요
 - 신축건물이 '환구단'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필요
 - '대관정 터' 유구 전시계획서 등 자료 제출 후 검토
 - 소공로 근대건축물의 진정성 유지 보존방안 개선 필요
- ('18.4.24.) '18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보류
 - 분야별 보완자료의 적정성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

○ ('18.6.8.) '18년 제1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검토 결과

- 환구단(황궁우)에 상시 진동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구조안전모니터링 방법을 추가함
- '대관정 터' 유구 전시계획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분과와 근대문화재분과가 합동으로 별도 검토 논의 하도록 함
- 소공로 근대건축 유구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파사드의 수직방향의 ONE-SPAN 또는 일정 간격의 보존도 염두에 둔 건축계획을 권고함
- ③번 건물의 내-외부는 보존상태가 양호하므로 되도록 모두 보존되도록 검토 할 것을 권고함
- 위와 같은 사안이 반영된 보완계획에 대하여 추가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도록 함

○ ('18.9.4.) '18년 제3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검토 결과

- 공사 착공전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문화재(환구단) 구조 안전 계측을 시행하고 동 계측 결과에 대한 구조안전 이상 유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를 첨부한 보고서를 월단위로 서울 중구청과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함
- 이와 관련 계측기는 목조문화재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설치하고, 1개소는 변위에 취약한 내부의 상부지점에 설치
- '대관정 터' 유구 전시와 관련된 사항은 '유구 보존 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 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 소공로변 근대건축물 보존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 건물군 내부에 필로티 통행로를 마련하고 동 공간에 소공로 근대 도시건축 구조 역사성을 되새길 수 있는 전시관(일명, 스트리트뮤지엄)을 구상하되, 서울시의 관광안내소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기능이 되도록 설치하는 방안
- 4번·5번 건축물의 파사드부는 원형 보존하는 방안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위와 같은 사안이 반영된 보완계획에 대하여 추후 문화재위원회 본회의에서 심의 하도록 함

○ ('18.10.23.) '18년 제10차 근대문화재분과 심의 조건부가결

- '대관정 터' 유구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유구보존적정성 합동(매장분과, 근대분과)검토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름
- 소위원회(수권)를 구성하여 통행로 조성방안(①건축물 내부 필로티 통행로, ②건축물 우회 통행로) 및 소공로 스트리트 뮤지엄 구상을 검토함. 이와 관련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종전대로 함

○ ('18.11.30.) '18년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 심의안(1안)으로 함

* 근대건축유구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스트리트뮤지엄의 진정성을 확보하면서 조성하되 설계안은 문화재청 승인 후 시행할 것

*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는 주변의 사적(환구단, 서울 한국은행 본관)보호에 항상 유념하여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을 것

마. 의결사항

○ 부결

- 소공로가 갖는 역사성 확보를 위한 근대건축물의 입면 보존은 진정성 확보가 핵심인데,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은 원형이 훼손되어 진정성을 확보할 수 없음

○ 출석 10명 / 부결 6명, 조건부 가결 1명, 제척 3명

3.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8.25.)를 거쳐 등록 예고한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에 대하여 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크기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독립신문 (獨立新聞) 상해판	170점	38.5×27cm 등	1919~1926년	대한민국역사 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1.27.) : 문화재 등록 신청(서울특별시→문화재청)
 - ('20.7.2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0.8.25.)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9.15.~10.14.(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만 7년에 걸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임

- ‘독립신문 상해판’은 독립군의 활약상, 세계정세의 흐름, 일본의 만행과 침략에 대한 비판, 민족 독립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
- 또한 신청 유물은 기 등록 제510호 독립신문 상해판(연세대학교 소장본)이 미소장한 호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 창간되어 1926년 11월 정간할 때까지 총 198호를 국한문으로 발행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로,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과 각료의 동정, 임시의정원의 개회와 회의록, 국내의 독립운동 동향, 만주와 러령 연해주의 독립군 전투를 비롯한 활동 내용 등을 담고 있음. 해당 유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가치와 존재가치를 실증하는 1차 사료로 전시, 교육,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가치가 있으며, 기 등록된 연세대 소장본과 상호 보완을 이룰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0.7.22.)

- ‘독립신문 상해판’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며, 일제 식민 지배의 실상을 고발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창간호부터 1926년까지의 제198호 중 170개 호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5개 호를 소장하고 있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독립신문(獨立新聞) 상해판
2.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소유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 조사자 의견('20.7.22.)

<문화재위원 ○○○>

1) 개요

- 『독립신문 상해판』은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국한문으로 발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1919년 8월부터 1926년 11월까지 만 7년에 걸쳐 모두 198호가 발행되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신청한 수량은 이 중에서 170점임.
- 창간이후 그 해 10월 16일(제21호)까지의 제호는 『獨立』, 10월 25일(제22호)부터는 『獨立新聞』, 1924년 1월 1일(제169호)부터는 『독립신문』으로 바뀌었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독립신문(獨立新聞)』(국가등록문화재 제506호)은 처음 서재필 박사가 1896년에 발행하였다가 3년 뒤에 폐간된 최초의 민간신문의 제호임. 이후 이 제호는 상해에 망명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자체의 기관지의 제호로 다시 사용되었음. 그래서 두 신문의 구분을 위해 상해에서 발행한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보통 『독립신문 상해판』로 일컬음.
- 임시정부에서는 민족의 독립 이념을 전파하고 국내외의 여러 독립운동 활동, 임시정부 조직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국한문신문인 『독립신문 상해판』을 1919년부터 1926년까지 만 7년 동안 상해에서 총 198호를 발행하였음.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국한문 신문 외에 같은 이름으로 중문판으로도 발행하였음.
- 『독립신문 상해판』은 주로 국내외의 독립운동 소식과 독립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소개하였음. 창간사에서 신문의 발간 목적을 ① 독립사상 고취와 민심통일, ② 독립사업과 사상 전파, ③ 유력한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를 독려하여 국민의 사상과 행동의 방향 제시, ④ 새로운 학술과 새로운 사상 소개, ⑤ 국사(國史)와 국민성을 고취 및 개조 등이었음을 밝히고 있음.



<사진1> 개천절 기념호(좌)와 3.1절 기념호(우)

- 1919년 8월 21일에 『獨立』이라는 제호로 창간호를 발행한 뒤 주 3회(화, 목, 토요일)에 국한문으로 발행되었음. 『독립』은 1919년 10월 16일자(제21호)까지 발행되다가 10월 25일자부터 제호를 『독립신문』으로 바꾸어 발행하였음. 1920년 6월 24일자(제86호)를 발행한 뒤 다시 신문사가 봉쇄되었다가 그 해 12월 18일자(제87호)로 속간하였음. 1921년 6월에는 인쇄소 폐쇄로 정간되었다가 그 해 8월 15일자(제110호)로 속간되었음. 1925년부터 1926년 동안 겨우 19호를 발행하다가 폐간되었음.
- 인쇄방식은 흑색 인쇄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기념이 되는 호는 적색이나 청색으로 인쇄하였고, 사진이나 그림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수록하였음. 판형은 제190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 제192호부터 제198호까지는 타블로이드판의 절반 크기인 국판이었음.



<사진2>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유일본 5개호

- 이렇게 『독립신문 상해판』은 모두 198호가 발행되었는데 국내외 소장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는 9개호가 확인되지 않았음. 다행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에서 5개호가 확보됨으로써 이제는 4개호만 미확인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종이의 산화.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이므로 보존환경은 좋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독립신문 상해판』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자체 소장본 외에 산재한 『독립신문 상해판』을 2016년부터 기사목록과 함께 원문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음.



<사진3> 『독립신문』 원문이미지 제공(대한민국 역사박물관)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2012.10.17.)인 『독립신문 상해판』은 전 198호 중에서 21개호가 결락되어 있음. 이에 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소장본중에서 제177·178·179·180·195호 등 총 5개호는 현전하는 독립신문 상해판중에서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7) 등록가치의견

- 『독립신문 상해판』은 상해 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독립군의 활약상, 세계정세의 흐름, 일본의 만행과 침략에 대한 비판, 민족 독립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의 『독립신문 상해판』은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사에 있어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며, 전체 198호 중 창간호와 마지막 호를 포함한 총 170호를 소장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미공개된 제177, 178, 179, 180, 195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 등록 문화재인 연세대 소장본과 상호 보완됨.

8) 기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독립신문 상해판』(『상해판 독립신문』)은 국한문판과 중문판이 있음. 또 신문명과 발행지역명을 동일하게 배열하는 것도 약간의 혼란이 있음. 명칭 등록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독립신문(상해판)]이나 『독립신문(국한문 상해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참고문헌

- 최기영, “독립신문해제”(http://archive.much.go.kr/archive/newspaper/release.do)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https://www.much.go.kr/museum>)
- 『독립신문』 (http://archive.much.go.kr/archive/newspaper/index.do)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독립사’ 또는 ‘독립신문사’ 명의로 발행하였지만, 실질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임
- 1919년 8월 창간되어 1926년 11월 재정상 이유로 정간할 때까지 총 198개 호를 국한문으로 발행하였음
-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8월 21일자로 창간, 처음 『獨立』이라는 제호로 주 3회(화, 목, 토) 국한문 타블로이드판 4면으로 발행함
- 1919년 10월 25일자 22호부터는 『獨立新聞』, 1924년 1월 1일자 169호부터는 『독립신문』, 1926년 이후에는 『독립』으로 제호를 바꿔가며 주 2회(화, 토), 또는 旬刊, 또는 부정기로 발행하다가 1926년 11월 30일자 198호로 종간함

2) 주요 내용 및 특징

- 독립신문 상해판은 1면에는 사실과 국제정세, 2면에는 임시정부 소식, 3면에는 만주와 러령 연해주 등 독립운동계 소식, 4면에는 본국(국내) 소식과 문예 등 종합지로 꾸며짐
- 구체적으로 임시정부의 시정 방침과 각료의 동정, 임시의정원의 개회와 회의록, 국내의 독립운동 동향, 만주와 러령 연해주의 독립군 전투를 비롯한 활동 내용 등이 자세하게 보도됨
- 아울러 3.1 독립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기념일, 음력 10.3 개국기원절(개천절) 등 임시정부의 기념일 행사 내용도 여러 차례 소개됨
- 특히 대한군정서 총재 서일의 청산리대첩 전과 보고 등 만주 독립군의 승전보, 김익상의 상해 황포탄 의거나 김지섭의 도쿄 일 왕궁 투탄 기사 등 의열투쟁 소식, 국내의 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노동운동 등 각계각층의 항일투쟁, ‘한국독립운동의 진상’이나 ‘아령실기(俄領實記)’ 등 독립운동의 역사, 그리고 ‘태극기’ 등 애국 시와 ‘피눈물’ 등 항일소설 등도 연재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독립신문 상해판 총 198개 호 가운데 결본 28개 호를 제외한 170개 호의 원형 보존 상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지면의 일부분이 훼손된 것도 있음
- 특히 발간된 지 100년이 넘었거나 그에 도달하여 지면 전체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등록문화재로 신청한 170점의 독립신문 상해판은 향온 향습화된 수장고에서 낱장으로 보존 처리된 상태로 잘 관리되고 있음
- 하지만 수장고가 매연으로 찌든 대도시 한복판에 그것도 화재에 취약한 노후화한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로 지정될 경우 장기적인 보존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독립운동시기 우리 역사상 최초로 성립한 국민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실증하는 원본 자료로 다양한 활용 가치를 지님
-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장차 건립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와 교육과 학술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아울러 한국 독립운동사는 물론 근대 신문사, 나아가 근대 문화사와 사상사 자료로 활용이 기대됨
- 특히 ‘의회’(임시의정원)와 ‘정부’(임시정부) 등 헌법 기관을 매개로 국민주권주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주는 ‘민주주의 역사’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연세대 소장본 독립신문 상해판이 현재 동일 유형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로 등록되어 있음
- 이와 비교하여 신청 자료는 아래와 같은 가치를 지님
 - ① 신청자료가 연세대 소장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보존 상태가 우수함. 연세대 소장본 창간호는 전면의 아래 부분이 망실되었지만, 이 자료는 전혀 손상이 없고 대부분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음
 - ② 신청자료는 연세대 소장본 가운데 결호 부분을 일부 보충할 수 있음. 연세대 소장본은 21개 호의 결본이 있는데, 이 가운데 5개 호(177~180호, 195)를 이 자료로 보충할 수 있음
 - ③ 연세대 소장본과 신청 자료가 상호 보완을 이루면 완결성을 제고할 수 있음. 연세대 소장본은 21개 호(40, 125, 126, 177~182, 186~188, 190~198)의 결본, 신청 자료는 28개 호(2, 3, 4, 40, 46, 87, 88, 90~99, 101~106, 125, 187, 189, 190, 191호)의 결본이 있어 상호 보완하면, 독립신문 상해판의 결본 수는 5개 호(40, 125, 187, 190, 191호)만 남게 됨
- 독립신문 상해판 198개 호 원본은 연세대 소장 177점과 신청자료 170점을 제외하고는, 독립기념관 16개 호(1~5, 10~12, 14, 17, 24, 117, 133, 187~189호) 소장에 불과하여 두 기관이 소장한 자료의 희소성이 매우 높음

7) 등록가치의견

-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할가치와 존재 가치를 실증하는 1차 사료로 전시, 교육, 학술 연구의 귀중한 자료임
- 한국독립운동사는 물론 민주발전사, 근대 신문사 연구의 1차 자료임
- 독립운동시기 시와 소설 등 근대 문학사와 사상사 연구의 1차 자료임
- 이 같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독립신문 상해판 원본 총 198점 가운데 170점 이상 보유한 기관은 연세대와 신청기관 두 기관에 불과한 희소성이 있음

8) 참고문헌

- 정진석, 「상해판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 『산운사학』 4, 1990.
- 최기영, 「상해판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 국학자료원, 1999.
- 김희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3(상해시기), 독립기념관, 2009.
- 김용달, 『대한민국임시정부 그 100년의 역사』, 역사공간, 2019.

9)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으로는 ‘독립신문 상해판’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문화재전문위원 ○○○>

1) 현상

- 중국 상하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은 1919년 8월 21일 창간호가 발간되어, 1926년 11월 30일 제198호로 폐간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독립신문』 상해판 전체 198개 호 가운데 170개 호가 완벽한 형태로 소장하고 있음(창간호부터 마지막호 포함). 특히, 기존에 발굴되지 않았던 5개 호(제177호, 제178호, 179호, 180호, 195호)를 소장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5년 ‘통문관’으로부터 공개 구입하였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2016년 연세대 소장본, 독립기념관 소장본, 통문관 소장본 등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호수를 묶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자료집’ 제5호로 『독립신문』을 발간하였음. 현재 『독립신문』 상해판 가운데 결호는 제40호, 제125호, 제190호, 제191호 4개호가 발굴되지 않음. 국가등록문화재 제510호로 등록되어 연세대 도서관에 소장된 『독립신문』 상해판은 창간호가 아래 부분이 망실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에 언급된 5개호를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6년 11월 7일 클리닝, 접합 및 보강, 결손부 메움 등 보존처리를 하여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음

2) 내용 및 특징 :

- 『독립신문』은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서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소개하고,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을 전하며, 일제 식민지배의 실상을 고발하는 등 한국독립운동에 관한 가장 중요한 자료임. 『독립신문』은 국내외 동포들에게 독립운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국한문으로 발행되었으며, 중국인을 대상으로 중문판도 별도로 간행되었음
- 『독립신문』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8월 21일 창간호가 국한문신문으로 발행되어 1926년 11월 30일 제198호로 폐간되었음. 그리고 자매지로 1924년 7월부터 약 40호가 간행된 중문판과,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충칭(重慶)에서 중문판 『독립신문』 7호까지 발간되었음
- 연세대 중앙도서관에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김봉준 후손으로부터 『독립신문』 상해판 전체 198호 가운데 21개 호가 빠진 것을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었음. 연세대 소장본은 1969년 중앙문화출판사에서 2권으로 영인하였으며, 1985년 독립기념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다시 영인 발간한 바 있음
- 연세대 소장본 『독립신문』 창간호는 아래 부분이 찢어져 망실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창간호는 완벽한 상태로 소장되어 있음. 독립기념관에도 창간호를 소장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본에 비하여 상태가 좋지 못함
- 『독립신문』 상해판은 현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70개 호,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177개 호, 독립기념관 17개 호(호외 1호 포함),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 5개 호 등 여러 기관에 소장되어 있음

3) 문헌자료

- 최기영, 「상해판 『독립신문』의 발간과 운영」,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 논문집』 하, 국가보훈처, 1999.
- 최기영, 「『독립신문』 해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소장자료집 5, 2016.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독립신문』, 2016.

4) 기 타

- 연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독립신문』 상해판이 국가등록문화제 제510호로 등록되어 있음(전체 198호 가운데 21개 호가 빠짐). 그리고 독립기념관에도 『독립신문』 상해판의 창간호를 비롯한 5개 호를 소장하고 있고,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에는 대한인국민회에서 자료 가운데 5개 호의 『독립신문』을 소장하고 있음

5)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독립신문』 상해판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로 임시정부의 활동, 국내외 독립운동 소식 등 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실고 있어 독립운동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임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1919년 창간호부터 1926년 제198호까지 170개 호가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발굴된 5개 호를 포함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현재 등록문화제 제510호로 지정된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과 함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 170개 호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판단됨

6)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독립신문』 상해판은 2016년 11월 7일 클리닝, 접합 및 보강, 결손부 메움 등 보존처리를 완료함에 따라 별도의 보존 정비는 필요하지 않음

4.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구광역시 중구 소재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0.8.25.)를 거쳐 등록 예고한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광역시 교육감
- (2) 대상문화재명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8(동인동 4가)
 - 소유자 : 대구광역시 교육청
 - 수량 : 1동
 - 건축면적 : 676.8㎡(현황측량)
 - 연면적 : 713.66㎡(강당 669.26㎡, 영사실 44.4㎡, 건축물대장)
 - 건립시기 : 1935~1937년 추정
 - 구조 :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6.25.) : 근현대 교육시설 문화재 등록 신청 권고(문화재청)
 - ('18.9.18.)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
 - ('20.6.2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8.25.) : '20년 제7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원안가결'
- (5) 등록예고 : '20.9.15. ~ 10.14.(30일간) '의견 없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6.29.)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건축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대구 구 도심에서 오래된 학교시설로서 근대기 도시 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사적, 교육사적, 지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29.)

- 동 강당은 동인초등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사로서, 최초 개교 당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음. 또한,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한 만사드지붕은 당시 건축적 수법 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적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유사한 건축적 양식과 수법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한 채로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6.29.)

- 소학교 강당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에 장대하고 고급스러운 처리로 보아 학교나 강당의 위상이 꽤 높았던 듯함. 증축으로 인해 남쪽 외벽은 철거되었고 출입문·지붕·내부 등에 걸쳐 여러차례 수리과정에서 광범위한 변형이 있었으나, 외벽·캐노피·창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붕틀 역시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지만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내부는 원형을 거의 잃었음. 1957년 증축부는 1960년대 일제강점기 지어진 학교 강당의 활용 방식을 보여 주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2017년 추가 증축이 있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강당의 실질적인 외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됨.
- 본 강당은 유형문화재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점이 독특하고, 식민지기 대구부의 도시성장 및 사회사와 연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됨. 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건축적·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만 하다고 생각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0명 / 원안가결 10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구)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
(구) 대구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 강당
2. 용 도 : (현) 교육시설 (강당) (원) 교육시설 (강당)
3.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728 (동인동 4가)
4. 소유자 : 대구광역시교육청(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5. 건축물 개요

- 준공일 : 1935~1937년(추정), 1956년 6월 1일(재산대장 기록)
- 건축구조 : 벽체) 철근콘크리트·벽돌혼용조
(기초) 철근콘크리트 줄기초(추정)
(바닥) 철근콘크리트 위 목재마루 깔기(추정)
※ 원형은 동바리 마루틀 위 장마루깔기로 추정
(벽체) 하부(바닥~창대높이) 무근콘크리트조(추정)
상부: 붉은벽돌 조적조
(테두리보, 북쪽 박공면, 캐노피) 철근콘크리트조
지붕틀) 목재 지붕틀(만사드 트러스로 추정)¹⁾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713.66㎡ (강당 669.26㎡, 영사실 44.4㎡)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대지면적	실측평면도(2018) 자료
원형	약 396㎡	약 396㎡	-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실측평면도(2018) ²⁾ ※1957년 증축부 2층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모두 포함
1957년 증축부	약 182㎡	약 226㎡		
2017년 증축부	약 92㎡	약 92㎡		
합계	약 670㎡	약 714㎡		
1987.1.1.~2002.1.1	-	748.4㎡	-	-대구동인초등학교 재산대장 -(대구)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보고서(2004) : 748㎡로 표시 -근현대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2017) : 748.00㎡로 표시
2017년 증축 이전	-	577.56㎡	17,245.21㎡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2018.8.13.)
2018.7.16. (증축통보일) 이후	-	669.26㎡	17,178.1㎡	-토지대장(발급일2018.8.13.)
	-	713.66㎡	-	-등록문화재신청서

- 층수(높이) : 원형) 지상1층,
1957년 증축부) 일부 지상2층, 일부 지상1층
2017년 증축부) 지상1층

1) 구조 추정 부분은 본 강당과 매우 유사한 형태·크기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의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0,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에 따른 것임.
2)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실측평면도>(2018) 치수로 계산한 값.

6. 조사자 의견('20.6.29.)

<문화재위원 ○○○>

1) 개요

- 현재 대구 동인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중구는 본래 대구읍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1906년 대구읍성이 철거된 이후 전통적 도시구조에서 근대적 도시구조로 점차 변화
- 대구 중구는 과거 읍성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근대 건축물이 건축되며 시가지가 점차 확장되었으며, 현재도 대구의 원도심이자 구시가지 지역으로 다수의 근대 건축물이 현존
- 대구 중구의 현존 근대건축물로는 사적으로 대구 계산동성당, 구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대구 유형문화재로 선교사스윗즈주택, 선교사챤니스주택, 선교사블레이어주택, 성모당, 대구제일교회, 샬트르성바로수녀원성당, 남산초등학교 강당, 계성학교아담스관, 계성학교맥퍼슨관, 계성학교헨더슨관, 구대구상업학교본관, 한국산업은행대구지점, 문화재자료로 성유스티노신학교, 샬트르성바로수녀원코미넛관이 대표적 사례.
- 이외에도 대구 중구에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구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대구동산병원 구관, 대구화교협회, 대구 구 교남YMCA회관, 대구 삼덕초등학교 구 관사가 현존
- 현재 대구 동인초등학교가 위치한 중구 동인동은 일제강점기 당시 동운정(東雲町)이라 지칭되었으며, 구 대구읍성 인근 동쪽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시가지를 형성하며 대구부청(大邱府廳) 등 각종 관공서와 학교가 건축되었고 일본인 주거지를 형성
-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1935년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로 개교되었으며, 이후 1945년 동운국민학교, 1946년 동신국민학교, 1949년 동인국민학교로, 1996년 동인초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1935년 4월 1일 개교 후 교사 대부분의 건물이 최초 건축된 이후 그동안 철거, 신축, 증축되었으며, 현재 오래된 역사적 건물로는 강당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상태.
- 현재 강당은 최초 건축시기 관련 일부 고증자료가 상호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신축연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강당이 표현된 가장 이른 시기의 고증자료에 의해 1937년 이전으로 추정 가능함
- ‘조선총독부제작 일만분의일조선지형도집성(柏書房株式會社 1985년 발행)’ 내용 중 ‘昭和12(1937)年修正測圖 大邱1’ 도면에서 현재 동인초등학교 위치에 ‘小學校’로 표현되고 현재 강당 위치에 강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그려져 있어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1937년 이전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 가능함
- 학교측의 ‘재산대장’에 의하면 강당은 1956년 6월 1일에 연와조, 스투트 지붕, 건축면적 및 연면적 124.1평 규모로 신축되었고 1964년 6월 30일에 보존등기된 것으로 기록되었지만, 1954년 항공사진에도 현재 강당이 증축 이전 규모로 나타나 있어 ‘재산대장’의 기록은 오류로 판단됨

- 따라서 강당 신축 시기는 1937년 이전으로 확인 가능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인초등학교가 1935년 4월 1일 개교되었으므로 1935년부터 1937년 사이에 신축된 것으로 확인 가능함
- 학교측 ‘연혁지’에 1957년 증축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증축관련 세부기록은 없으며, 당시 강당 내부의 무대 반대편 2 Span 부분과 2층 규모의 영사실 부분이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은 증축 부분 외관이 1960년대 고증사진에도 나타나고 있음
- 또한 학교측 ‘연혁지’에 1971년 중수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중수관련 세부 내용은 없으며, 당시 개방적 구조의 2층 규모 영사실 부분이 외벽으로 막히고 내부 개보수는 등의 중수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현재 화장실, 샤워실, 창고 등으로 구성된 1층 규모의 목재비늘판벽 부분이 증축되었으며, 이와 같은 증축 내용은 현재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에 의해서 명확하게 확인됨
- 강당의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 적벽돌 벽체, 수직적 형태 창문, 목조트러스 지붕틀, 맨사드 지붕이고 지붕처마 아래의 연속적 덴틸(Dentil) 장식이 특징적 요소이며, 현재는 최초 건축된 부분과 1957년 증축된 부분이 연결되며 서로 다른 형식의 입면과 비정형적 맨사드 지붕을 형성
- 내부에서 특징적 부분은 무대로 본래 벽면에서 무대바닥만 돌출된 개방적 형식이었고 후면 벽면을 반원형 붙임기둥(Pilaster) 2개 등에 의해 장식하였으나, 현재는 프로시니엄(Proscenium) 형식으로 변형된 상태
- 1937년 ‘조선총독부제작 일만분의일조선지형도집성’ 내용중 昭和12(1937)年修正測圖 大邱1 도면에 표현된 강당 배치도와 과거 사진에 의하면 현재 무대 측면 부속실 외벽의 출입구는 현재는 철거된 구 본관과 연결된 통로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1935~1937년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 일제강점기 당시 적벽돌 벽체와 맨사드 지붕을 기본으로 하였던 일반적 강당 건축형식으로 건축되었으며, 전체적 건축형식은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1936년 건축, 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과 매우 유사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신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를 거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현재까지 학교 강당으로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되었으므로 노후화가 심각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보존, 관리 상태는 양호함
- 강당 외관에서는 벽돌 조적조 외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지붕처마감재는 스테이트에서 금속지붕으로, 창호는 목재에서 알루미늄으로 각각 변경되었고 출입구 부분에 캐노피(Canopy) 구조물을 설치
- 강당 내부에서는 무대가 본래 벽면에서 돌출된 개방형식이었으나 현재는 프로시니엄 형식으로 변경되었고 천장은 본래 천장마감 아래 현재의 천장마감이 추가로 설치된 상태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동인초등학교는 대구광역시 구도심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주변이 변화하고 복잡하지만 학교의 특성상 넓은 부지를 형성하고 강당 등 건물 주변에 운동장 등 넓은 외부공간(Open Space)를 확보하고 있고 또한 학교측에서는 학교 오랜 역사의 유일한 현존 흔적으로서 보존하고자 하므로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강당은 그동안 탁구 연습장 용도 위주로 사용되어왔으며, 학교측에서는 현재의 활용형식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고 새로운 활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상태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학교 강당 지정문화재로는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 부강초등학교 강당(세종 유형문화재 제5호), 광주수피아여자고등학교 소강당(광주 문화재자료 제27호), 대전여중 강당(대전 문화재자료 제46호) 등의 사례가 있음
- 현재 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로는 구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과 본관 포치,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 흥성고등학교 강당,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 등의 사례가 있음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은 전체적 건축형식이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1936년 건축, 대구 유형문화재 제44호)과 매우 유사

7) 등록가치의견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1935~1937년 최초 건축되고 1957년 증축되어 현재의 기본적 공간과 형태를 구성하였으며, 기본적 건축형식은 장방형 평면, 적벽돌 벽체, 수직적 형태 창문, 목조트러스 지붕틀, 맨사드 지붕이고 지붕처마 아래의 연속적 덴틸(Dentil) 장식이 특징적 요소
- 동인초등학교 강당은 최초 건축 이후 몇 차례 증축, 개보수되며 내외부가 변형되었지만 최초 건축 부분과 1957년 증축 부분은 벽체, 지붕, 덴틸 장식 등 외관의 기본적 형태와 구성요소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
- 이상과 같은 건축적 의미와 가치뿐만 아니라 대구 구 도심에서 오래된 학교시설로서 근대기 도시공간 구조와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사적, 교육사적, 지역사적 의미와 가치도 지니고 있으므로 등록문화재로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현재 학교명을 따라서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또는 신축 당시의 학교명을 따라서 '대구 동운정공립심상소학교 강당' (국가등록문화재 제30호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사례 참조)
- 현재 1층 규모로 목재비늘판벽으로 마감된 부분은 등록시 등록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보존, 원형복원, 경관 등을 위해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오늘날 '대구 동인초등학교'는 최초 1935년 4월 1일 '일본 동운소학교'로 시작하여, 해방 후 1945년 11월 8일에 '대구 동운공립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그해 12월 5일 개교하였음.
- 또한, 여러 차례의 교명도 변경되었는데, '대구 동신국민학교(1946년 7월 2일)', '대구 동인국민학교(1949년 8월 23일)' 등을 거쳐 1996년 3월 1일 오늘날의 교명인 '대구 동인초등학교'로 최종 확정되었음.
- 이번 등록 신청한 강당 건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축적 내력이 없어 최초 건립년대를 알 수 없으나, 관련자료(위성 및 기록사진 등)에 따르면 195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소유자 측에서 제출한 건축물 등기부에는 최초 건립을 1956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등기부에 등재된 당시의 기록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근에 위치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4호, 2003년 지정)' 건물이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건축양식과 수법 등을 보이고 있는데, 관련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개교 시점(1935년~1936년)에 맞춰 1936년에 건립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따라서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의 경우에도, 개교 시점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때, 1935년~1936년 사이에 최초 건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향후 자료 보완 등을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 이밖에, 최초 개교 당시 교사(校舍) 건립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나, 최초 본관과 강당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별관(1954년~1957년 추정)과 신관(1967년) 건물이 추가적으로 준공되었던 것으로 보임. 현재는 이들 건물 중 본관(1985년 철거), 별관(1986년 철거) 건물은 철거된 상태이고 강당과 신관만이 남아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지상1층, 정면39.5m×측면14.8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의 조적조(붉은벽돌) 건물로 지붕은 만사드지붕으로 비교적 높게 처리하여,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층고를 충분히 확보하였음. 내부는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측 단변부 쪽에 무대를 설치하였음.
- 입면은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하였는데, 기단에서 창대석까지는 조적벽체 위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그 위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여 석조의 이미지를 주었으며, 측부에는 수직방향의 세장한 창호를 규칙으로 설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하였고, 지붕 아래의 코니스 부분은 텐털장식으로 처리하였음.
- 무대 뒤쪽으로는 외벽면을 돌출시켜 단조로운 입면구성에 변화를 주었고, 좌·우 대칭되는 곳에 보조 출입문을 설치하였는데 상부에는 캐노피를 두고 그 양쪽 아래에는 까치발로 지지하게 하였음.
- 지붕 가구는 현장 여건으로 인해 조사 당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제출한 일부 사진자료에 따르면 목조트러스 골조가 보이지만 구체적인 만사드지붕 구조에 대해서는 확인 할 수 없었음.

- 관련 항공사진(1954년 촬영) 자료에 의하면, 정면 우측 외벽면에 일종의 복도용 건물이 본관 건물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에도 이 위치에 박공형 캐노피와 함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벽면에는 과거 복도용 건물의 지붕마감선(후레싱)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확인됨.
- 최초 건립 당시 강당은 정면과 배면 중앙부에 높게 세운 조적 굴뚝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 상태의 남측 입면과 상부 지붕형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이 부분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즉, 비슷한 건축양식 및 기법 등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비교해 보면, 남쪽 측면으로 일부 증·개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측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교연혁지’에 따르면 실제로 1957년 10월 31일에 강당 증축 공사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증축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기록사진 등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강당 내부의 무대 반대편 쪽으로 일부 공간(중2층 규모의 스탠드 시설로 추정)이 확장되었고, 또한 확장된 외벽면에 콘크리트구조의 계단실을 달아내어 외부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임.
- 다만, 상술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남측면 상부의 지붕 형태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취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1954년 촬영된 항공사진에 따르면 좌·우측 지붕 박공면이 이미 대칭된 형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기도 함.
- 이와 함께, 1971년 2월 15일에는 한 차례의 중수 공사가 있었는데, 이때 콘크리트 구조의 계단실 일부 공간을 영사실(관계자 증언)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강당 내부에 설치하였던 중2층 규모의 스탠드 시설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됨.
- 이밖에, 1986년 지붕개량 공사, 1993년 누수 보수 공사, 1995년 바닥 및 벽, 천정 일부 보수 공사, 2007년 출입문 교체, 2012년 바닥 도장 공사, 2017년 리모델링(바닥교체, 무대 및 벽면, 냉난방기) 및 부대시설 증축(체육창고, 샤워장, 화장실, 연구실)공사를 진행하였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 작성된 도면 또는, 건물의 전반적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 사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 다만, 일부 공간이 증·개축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 구조체에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다목적 강당 등으로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어, 적기에 수리 및 보수 등이 이루어져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학교 측에서는 현존하는 교사 건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역사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향후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현재에도 다목적 강당의 기능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의 사용되는 기능과 함께 근대기 교육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학교 교사 건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 있으며, 특히 이번 등록 신청한 동인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건축양식과 수법 등을 보이고 있는 사례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시 유형문화재 제44호, 2003년 지정)’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
- 단, 남산초등학교 강당의 경우에는 주변 도로 편입 문제로 2011년 이건(移建) 공사가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강당은 동인초등학교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사로서, 최초 개교 당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음. 또한, 강당으로서의 필요한 충고를 확보하기 위해 채용한 만사드지붕은 당시 건축적 수법 등이 비교적 잘 반영된 것으로 건축사적 측면에서 가치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건축적 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매우 유사한 건축적 양식과 수법을 보이는 인근의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이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한 채로 대구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며, 최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대구 동인초등학교 구 강당」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학교연혁>

- 강당이 있는 학교는 「조선총독부 경상북도고시」 제68호로 1935년 5월 27일 당시 주소 ‘대구 동운정 410번지의3’ 위치에 ‘대구동운정(東雲町)공립심상소학교’라는 명칭으로 설립 인가되었다.³⁾ 이 위치는 일제강점기 대구부 시가지의 동쪽에 치우쳐 있고, 가까이에 도립병원, 의학전문학교, 세무서, 조선제사장 등이 있었다. 학교에는 일본인 관료나 군인의 자녀들이 많이 다녔고 일부 권력층 한국인 자녀들도 다녔다고 한다. 교지 북쪽에 서쪽 시가지 중심부와 연결되는 동서방향 대로가 위치하여 학교 정문은 이 대로 쪽으로 교지 북측에 나 있다.

3) 『조선총독부관보』 제2525호 소1935.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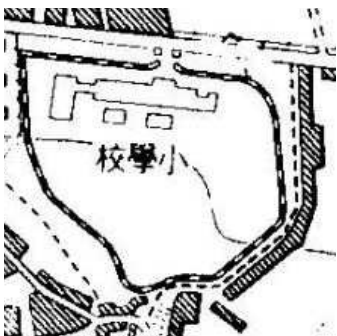
- 개교일은 1935년 4월 1일이며⁴⁾ 1941년 4월 1일 ‘동운(東雲)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1930년대 후반 이 학교는 대구 본정(本町)공립심상소학교와 함께 일제강점기 대구부에 소재한 일본인용 공립 초등교육기관 2개 중 하나, 1940년대에는 4개(육(旭), 본정(本町), 봉산(鳳山町), 동운정(東雲町)) 중 하나였다.
- 해방 이후 1945년 12월 5일 일제강점기 학교재산을 인수하여 공립 대구 동운(東雲)국민학교로 개교하였고, 1946년 7월 2일 동신(東新)국민학교로, 1949년 8월 23일 동인(東仁)국민학교로, 1996년 3월 1일 동인(東仁)초등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른다.

<강당 신축시기>

- 강당은 신축시기는 개교 이듬해이자 본관 낙성식(1936.6.14.) 즈음인 1936년 6월 ~ 1937년 사이로 추정된다.⁵⁾ 1956년 신축 기록은 오류로 보인다.⁶⁾ 지붕목조에서 상량이 발견되면 좀 더 정확한 신축시기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배치>

- 장방형 강당이 북쪽에 교문을 둔 교지의 서북측에 치우쳐 자리한다. 건립 당시에는 강당 동측에 강당과 직각으로 본관이 동서로 길게 남쪽 운동장을 향하여 자리했고, 본관 남쪽에는 본관과 나란히 짧은 교사 2동이 있었다.
- 길쭉한 본관에서 강당에 가까운 서쪽 단부를 단층으로(나머지는 2층) 처리하고 강당 동측면 중 북쪽 개구부에 접속시켜 실내로 본관○강당이 연결되었다. 본관과 강당을 별동으로 짓고 지붕 없는 외부복도를 통해 강당 주출입구로 연결하는 일제강점기 여타 학교강당의 배치방식과 달리, 본관을 강당에 직접 연결한 점과 강당 무대 우측 부속실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 본관과 교사 2동은 모두 철거되었고(1986년 추정: 학교 연혁지) 현재 이 자리에는 주차장이 있고 1986년 신축된 현재 본관과 교사동(동관)은 운동장 남쪽과 동쪽에 L자를 형성하며 자리한다.



대구 동운정심상소학교
(1937)
(1만분1조선지형도)



대구 동인국민학교 항공사진
(1954)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대구 동인국민학교 조감도(1967.8 ~ 1984.7)
(대구동인초등학교 연혁지)

4) 동인초등학교 교무실에 보관된 <대구 동인초등학교 연혁지>

5) 이는 <1만분1조선지형도집성>(조선총독부 간행) 내 대구 지형도(1937년 작성)에 강당이 현재 위치에 표현되어 있는 점, 이후 증개축은 있었지만 철거한 기록이 없는 점, 본관과 기타 건물의 낙성식이 1936년 6월 14일 있었는데 본관이 강당과 접속하고 있었으므로 '기타' 건물에 강당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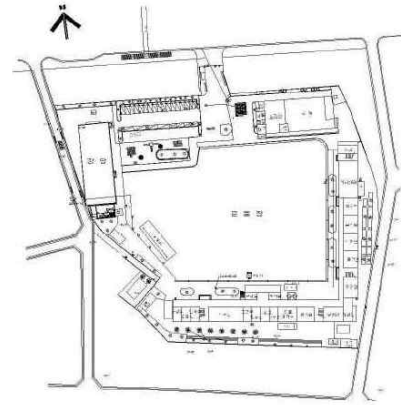
6) <문화재 등록신청서>, 『(대구)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조사보고서』(2004), 『근현대교육시설 일제조사 연구보고서』(2017)에는 모두 1956년 6월 1일 신축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대구 동인국민학교> 강당 재산대장<대구광역시 제공>의 '강당'이 이때 신축되었다는 기록에 따른 것인데, 이 '강당'의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이 124.1㎡에 불과하다. 재산대장은 1984년 강당의 면적 오류를 수정하고 있어 이 면적은 잘못된 것이므로 1956년 신축이라는 기록 역시 오류로 보인다.



본관의 서측부분 단층이 강당에 연결됨
(사진은 1959년 학교 졸업앨범)



대구 동인초등학교 항공사진
(2018)
(Daum 지도)



대구 동인초등학교 배치도
(2018)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창대까지 무근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붉은 벽돌 화란식 쌓기로 벽체를 올린 후 평보 위 코니스를 얹은 듯 보이도록 외팔보 형태로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두른 후 목재 만사드 트러스로 지붕틀을 짚으리라 짐작된다.
- 무대 뒤쪽 테두리보 상부에는 위를 3번 접은 합각벽(gambrel gable)이 올라와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보인다. 반대 정면쪽도 마찬가지로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증축하면서 원형을 잃었다.
- 서측·북측 입면의 각 출입문 위에는 외팔보 형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캐노피를 내었다. 운동장으로 향하는 동측면 남쪽 출입문 위에는 최근 캐노피가 추가되어 원래 처리를 알 수 없다. 동측면 북쪽 출입문은 본관과 실내로 연결되었기에 캐노피는 없었을 것이다.
- 바닥은 원래 맨바닥에 동바리를 세우고 명에와 장선을 건 후 장마루를 깔았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체육관 지정 바닥재를 설치한 상태이다. 바닥재를 변경하면서 기존의 바닥마감 아래 원 부재들을 걷어내고 최하부 바닥에 철근콘크리트 치기한 후 바닥을 재구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평면 및 외관>

- 장방형 평면에 짧은 쪽 한쪽에 무대, 반대쪽에 주출입구를 두는 좌우대칭의 평면 구성, 붉은 벽돌 조적조가 주를 이루고 세로로 긴 창을 내는 외관, 본관 등 교사동 가까이 배치한 것이 일제강점기 학교 강당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른다. 지붕에는 만사드 트러스를 높게 짜서 건물이 장대한 느낌을 준다. 동·서방향 긴 외벽에는 처마선보다 꽤 높게 올라간 굴뚝이 각각 2개씩 있고, 증축부와 접속하는 남측 모서리 부위에도 굴뚝이 하나 더 있었던 흔적이 있다. 지붕에는 동판 一자형 거멸접기로 이었는데, 신축 당시에도 一자형 잇기였는지는 알 수 없다.
- 남쪽으로 최소한 2차례 증축이 되어 원래의 남쪽 입면은 사라졌고 만사드 지붕의 일부도 증축부에서 변형되었다. 원래 남쪽 입면에 주출입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외벽은 아래로부터 3단 구성을 한다. 무근콘크리트 치기로 추정되는 하부벽, 붉은 벽돌 화란식 쌓기 벽과 세로로 긴 창, 테두리보로 몰딩 효과까지 낸 코니스의 구성이다. 하부벽과 코니스에는 몰탈바름 위 페인트칠되어 있다, 코니스는 다시 상하 3단으로 나뉘는데, 가운데 덴틸(dentil)을 연상시키는 장식을 삽입해 건물 전체에 입체감과 생동감을 준다.
- 운동장을 향하는 동측 외벽은 5개 구역으로 나뉘고 각 구역의 ㄱ자 안쪽을 벽돌마구리만큼 들여쌓기한 후 세로로 긴 창을 3개씩 내었다. 좌·우 끝단 구획은 폭이 좁고 역시 각각 ㄱ자 안쪽을 같은 깊이로 벽돌 들여쌓기한 후 출입문을 내었다.
- 반대 서측 외벽에는 출입문이 가운데 구역에 나 있다.
- 북쪽 외벽은 3구역으로 나뉜다. 가운데 무대 뒤 벽면을 바깥으로 얇게 튀어나오게 했는데, 실내에서 보면 무대 뒤쪽 이곳에 판문을 달고 교육칙어를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좌우 구역에는 무대 양 옆의 부속실에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외여단이 문을 내고 캐노피를 내밀었다.
- 남쪽 외벽의 구성도 북쪽과 같게 하고 가운데 튀어나온 벽면에 세로로 긴 창을 냈을 것으로 짐작되나, 일찌감치 증축으로 인해 철거되었다
- 출입문을 사방으로 낸 셈인데, 북측면과 서측면 출입문 위에 내민 철근콘크리트 조 캐노피를 받치는 단단으로 튀어나오는 까치발이 장식 효과를 낸다.
- 운동장을 향하는 동측 외벽의 북쪽 끝 구역의 출입문 상부 벽돌에는 철거된 본관의 서측 단부 박공면이 접속한 흔적이 남아 있다.



북서쪽 모서리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본관 서측 단부 박공면 접속 흔적
(조사자 촬영, 2020.6.29)

<내부>

- 강당은 현재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바다, 벽체, 천장, 무대, 창호 등 전체적으로 증축과 여러 차례 수리를 거치면서 원형을 잃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동인초등학교 교무실에 비치된 <동인초등학교 연혁지>에 기재된 강당 관련 내용을 추리면 아래와 표와 같다.

날짜(준공일)	강당 연혁	비고
1957.10.31.	증축	증축부분 미표기
1971.2.15.	중수	중수내용 미표기
1986.12.6.	보수공사 (지붕 개량, 도색, 실내천장·전기 및 전등 보수)	‘도색’ 위치 미표기
1988.12	천장재 3곳 대체	
1993.8.17.	누수 보수(지붕 둘레 물받이)	

날짜(준공일)	강당 연혁	비고
1995.12.27.	수리(바닥, 벽, 천장 일부)	
2007.6.15.	천장 안정기 및 램프 교체	
2007.6.25.	주출입문 교체	
2012	바닥 샌딩 도장 공사, 천장 텍스보드 공사, 천장 등(燈) 교체공사	바닥마감 및 천장마감 교체된 것으로 추정
2015.1.14.	외벽 도색	
2016.3.16.	천장텍스 교체 및 조명 LED로 교체 공사	
2016.3.16.	강당 간이화장실 설치	현재 없음
2016.4.31.	빔 프로젝터, 정보화 장비 보관함 등 설치(강당 정보화 사업)	
2017.4.10.	리모델링(바닥 교체, 무대, 벽면, 냉난방기)	
2017.4.10.	부대시설(체육창고, 샤워장, 화장실, 연구실) 증축	강당 남측면에 증축

○ 위 내용 중 큰 변화를 초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 ① 1957년 10월 증축
- ② 1971년 2월 중수
- ③ 2007년 6월 주출입문 교체
- ④ 2012년 바닥재 및 천장재 교체
- ⑤ 2016년 3월 강당 간이화장실 증축
- ⑥ 2017년 4월 바닥재 교체, 무대 및 벽면 리모델링
- ⑦ 2017년 4월 강당 남측면에 부대시설 증축

○ 1957년 증축과 1971년 중수의 공사내역은 없으나 이때 큰 변형이 있었고, 2000년대 들어와 천장재를 포함해 내부마감 전체가 교체되면서 내부변형이 되었고, 2016년과 2017년 강당 남쪽으로 화장실 등 부대시설이 증축되면서 변형이 더해진 것으로 요약된다.

○ ① 1957년 10월 증축의 성격은 1960년대 사진자료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강당 남측면으로 2층 건물(2층 중 남쪽은 외부 테라스)을 증축하면서 강당 지붕을 변형시켰고 가장 남쪽면에 외부 발코니를 만들었다. 2018년 실측 후 작성된 아래 평면도에서 점선부분이 신축 당시 남측 외벽이었는데, 이 외벽을 헐어내고 증축하였다.

○ ⑤ 1916년 증축된 강당 간이화장실은 ⑦ 2017년 4월 화장실을 포함하는 부대시설 증축 때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 ⑦ 공사 결과 ① 1957년 증축부 남쪽에 다시 단층 건물이 추가증축되었고, 외부 발코니는 실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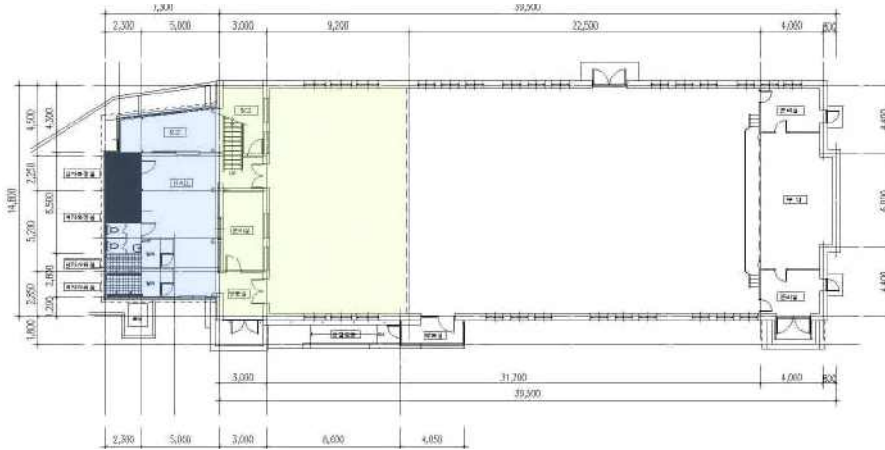
강당 증축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1957년 증축부와 원 강당의 연결부위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2017년 증축부(단층 경사지붕 부분)과 1957년 증축된 발코니의 실내화(2017)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1층평면도(2018년 작성)에 증축부 표시(연두색: 1957년 증축,
하늘색: 2017년 증축)

- <동인초등학교 연혁지>에 기록된 나머지 변형 및 수리는 내부 마감 및 창호 변경에 대한 것이다. 사진기록을 참조하면 원래 동서 입면의 출입문은 2짝 미닫이 목재 판문이고 남동 입면의 출입문은 목재 1짝 미닫이 목재 판문이며, 출입문 상부 작은 불박이 채광창 제외하고 외벽에 크게 난 모든 창은 세로로 긴 목재 오르내리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현재 2짝 미닫이문은 모두 스테인레스 스틸 틀 2짝 유리 여닫이문으로, 1짝 미닫이문은 철재 여닫이문으로 바뀌었고, 오르내리창의 창틀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바뀌어 있다.
- 운동장 쪽 동측 면에 2개 출입문 앞에는 경량철골로 캐노피를 덧대었고 남쪽 출입문에는 외벽면을 따라 경사로와 차양도 추가로 설치했는데, 이 공사기록은 없다.



동측 입면(좌우 출입문에 추가된 방풍실(좌) 및 캐노피(우))
(조사자 촬영, 2020.6.29)

- 내부의 바닥, 벽면, 천장, 무대, 출입문 등은 여러차례 변경되어 원형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 2017년 경 천장을 뜯어내고 벽천장 모서리를 찍은 사진을 보면, 문양을 부조로 넣은 석고 반자돌림띠를 둥글게 돌린 후 사선방향으로 井자형 반자틀을 짜고 엇모무늬로 치장합판을 붙여 반자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천장재 교체공사 때 반자와 반자돌림띠는 모두 철거되었으리라 짐작된다.
- 다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공사 당시 사진이나 공사기록 등을 확보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천장모서리 처리와 천장재 (2016년 천장재 교체공사 중 촬영한 사진으로 추정)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 애초에 무대는 나무로 짜여 있고 강당 폭에 비해 꽤 좁고 무대 좌우로 부속실로 난 문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쪽 문을 막고 무대를 넓혔다.
- 반대 남쪽 내부입면도 증축하면서 원형을 처음 잃은 후 변형이 더해졌다.



강당 무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무대(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무대
(조사자 촬영, 2020.6.29)



강당 남쪽 내부입면(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서쪽 내부입면(1960년대)
(대구광역시 제공 자료)

강당 남쪽 내부입면
(조사자 촬영, 2020.6.29)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학교 안에 위치한 시설로서 현재 사용중이며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은 양호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현재 학교 강당으로 활용중이며 현재와 같은 활용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학교 강당으로 등록된 문화재로는 <대봉동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 및 강당>(제5호),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제60호), <전주 신흥고등학교 강당 및 본관 포치>(제172호), <구 고창고등보통학교 강당>(제176호), <홍성고등학교 강당>(제272호), <구 청주공립보통학교 강당>(제350호), <청주 대성여자중학교 강당>(제351호),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강당>(제428호)이 있다.
- 동일 유형의 사적은 없다.
- 시도유형문화재로서 <세종 부강초등학교 강당>(세종시 유형문화재 제5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대구광역시 시도유형문화재 제44호)이 있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유사성 및 원형 추정>

- 이 중에서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元 남산정공립심상보통학교 강당, 1936, 건축면적 및 연면적 402.78㎡)은 본 신청건물과 쌍둥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유사한 크기·형태·재료·디테일을 가졌고 신축시기도 거의 같다. 같은 설계도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 차이점은 2가지가 잡힌다. 남산초등학교 강당에는 굴뚝이 없는 점, 본관과 연결되는 위치가 다른 점이다. 후자는 대지조건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차이로 보이며, 본 신청건물에만 굴뚝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 남산초등학교 강당은 도로개설 때문에 5m 옆으로 이축되기는 했지만 원래 형태는 잘 간직하는 반면, 본 신청건물은 여러 차례 증개축 및 수리 과정에서 원형을 많이 잃었다. 특히 1957년 증축과정에서 일찌감치 철거된 남측 정면의 모습은 남산 초등학교 강당 정면에서 유추할 수 있고, 이축과정에서 조사된 구조방식·디테일·마감처리 등도 본 건물의 원형을 살펴보기에 유용하다.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 정면
(문화재청 홈페이지)

7) 등록가치 의견

- 소학교 강당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에 장대하고 고급스러운 처리로 보아 학교나 강당의 위상이 꽤 높았던 듯하다.
- 증축으로 인해 남측 외벽은 철거되었고 출입문·지붕·내부 등에 걸쳐 여러차례 수리과정에서 광범위한 변형이 있었으나, 외벽·캐노피·창 형태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지붕틀 역시 증축으로 인한 변형은 있지만 보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내부는 원형을 거의 잃었다. 1957년 증축부는 1960년대 일제강점기 지어진 학교 강당의 활용 방식을 보여주고 학교 구성원들에게는 2017년 추가 증축이 있기 전까지 꽤 오랫동안 강당의 실질적인 외관으로 인식되었을 것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 본 강당은 유형문화재인 대구 남산초등학교 강당과 매우 유사한 점이 독특하고, 식민지기 대구부의 도시성장 및 사회사와 연계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 이에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건축적·역사적·사회적 가치를 보존할 만 하다고 생각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명칭은 현재 교명을 반영하여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이 적절해 보인다.
- 2016~2017년에 걸쳐 증축된 부분은 가건물처럼 처리되었고 원형 건물이나 1957년 증축 부분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최근 설치된 동측면 2개 출입문 앞 방풍실·캐노피와 경사로 위 차양 역시 형태·재료·시공 측면에서 조악하다. 하부벽의 채도 높은 푸른 페인트 색은 붉은벽돌과 어울리지 않는다. 모두 철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동측 입면의 좌측 출입문 앞과 우측 출입문 앞
(조사자 촬영, 2020.6.29)

5.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복원정비계획

가. 제안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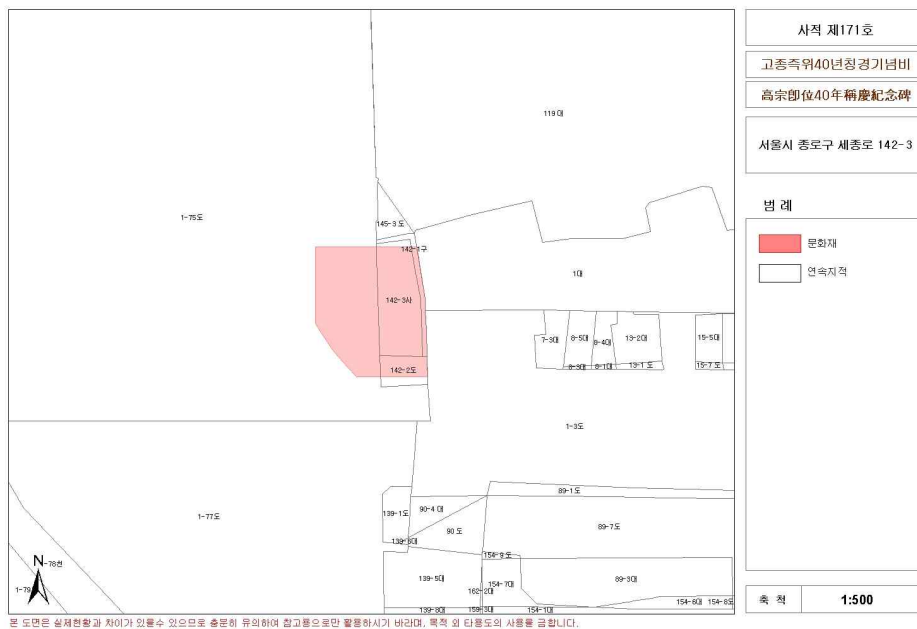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의 복원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의 복원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대상문화재 : 사적 제171호 「서울 고종 어극 40년 칭경기념비」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세종로 142-3
 - 소유자(관리단체) : 국유(종로구청)
 - 지정면적 : 580㎡(문화재구역: 580㎡ / 보호구역: 없음)
 - 지정일자 : '69.7.18.
 - 지정현황도면



(2)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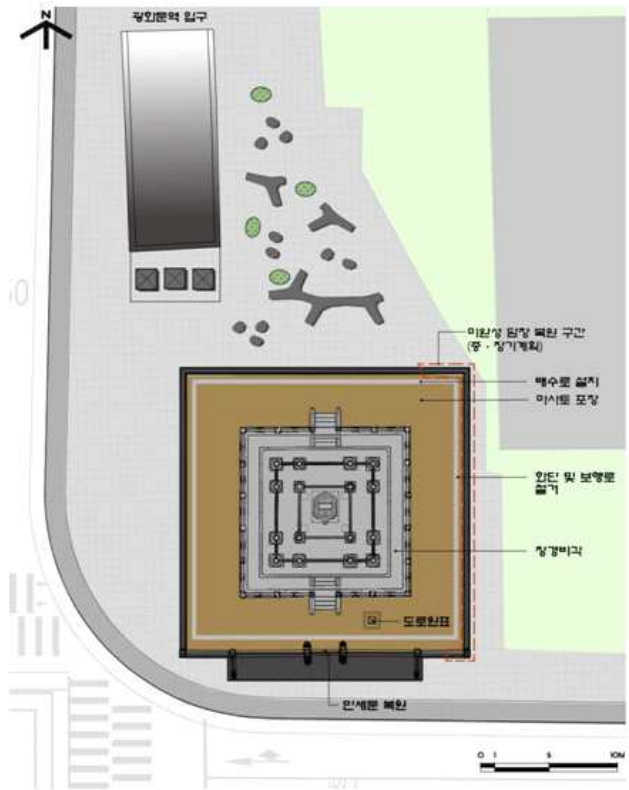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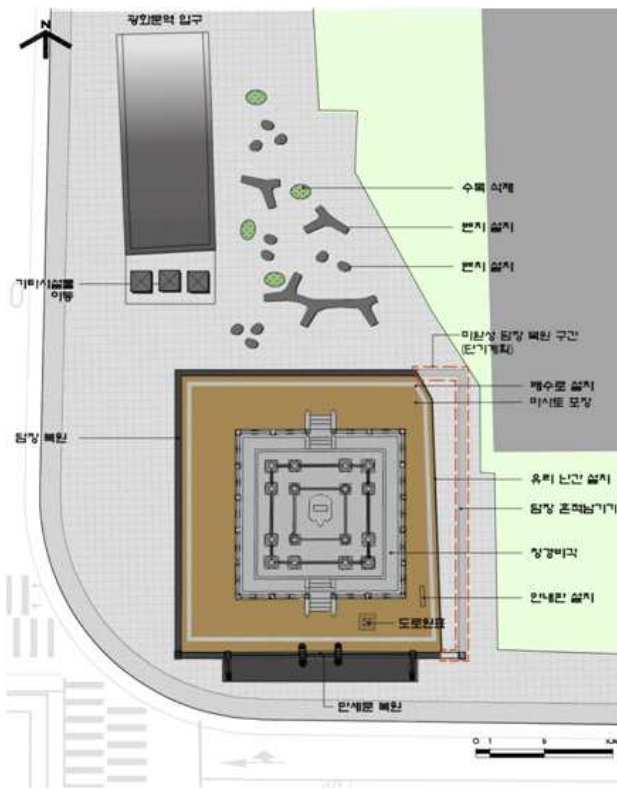
- ('20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지원(복원정비계획 수립)
- ('20.4.15.) : 문화재 복원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
- ('20.6.12.) : 착수보고회
- ('20.8.20.) : 중간보고회
- ('20.9.17.) : 최종보고회
- ('20.9.29.) : 문화재 복원정비계획수립 용역 완료

(3) 복원정비계획 주요내용

- 복원정비계획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 복원정비 내용

사업구분	세부 범위 및 내용
단기계획(1차) (2022~ 202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 광장 개선 사업(서울시 시행요청) - 보호구역 임시 가설 휀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복원 공사 - 만세문 이전 및 담장 원형 복원 - 원지반 레벨 조사 및 정비 - 가설공사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정비공사(북측 포켓 공원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웬스 내부 조명시설외 철거공사 - 청경비 남측 종로변 도로 교통 시설물 이전 공사 - 바닥 포장 공사 - 기타 시설물공사(CCTV외) - 공원 북측 포켓 공원 조성공사
중·장기계획(2차) (2025~ 20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복원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쪽 일부 + 동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공간 확보 및 전시공사 (광화문역 지하도 공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프로그램 연구 용역 및 기본계획 ○ 학술 행사 개최(2회)

라. 의결사항

○ 보류

- 담장 높이 등 세밀한 고증 필요
- 고증 결과에 따른 담장 복원도는 작성하되, 현재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정비안으로 작성 제출

○ 출석 9명 / 보류 9명

6.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12.)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9.11.19.)를 실시하고, 제4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20.5.26.)에서 '군산 둔율동 성당 공사설계도 보존상태 등 추가조사 후 재검토'하라는 사유로 보류되어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 신축기	1건 1점	23.5 × 17.6cm	1955년 ~ 1957년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군산 둔율동 성당
군산 둔율동 성당 신축 공사설계도	1건 1점	25.7 × 18cm	1955년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18.9.12.) : 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북도→문화재청)
- ('19.11.1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5.26.) :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 '보류'
 - 사유 : 군산 둔율동 성당 공사설계도 보존상태 등 추가조사 후 재검토
- ('20.10.23.) : 관계전문가 추가조사 실시

라. 관계전문가 추가조사 의견

○ 문화재위원 ○○○('20.10.23.)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와 '신축공사설계도'는 각각 제책 형태로 보존되고 있으며, 내용의 훼손이나 누락은 없으나 대부분의 종이는 변색되고 외곽, 모서리, 접힌 부분 등이 약간 훼손된 상태.
- 전체적으로 크게 변형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없이 성전신축기 문서철과 건축허가용 청사진 도면철로서 원형적 형식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문화재 등록이 가능한 보존상태로 판단됨.
- '신축공사설계도'는 당시 허가신청서, 청사진 도면, 지방서 등으로 구성되어 제책된 건축허가신청서 형식이므로, 등록 시 정확하고 구체적인 명칭으로서 '건축허가신청서'라는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신축공사설계도'는 트레이싱지 원도면이 아닌 청사진 복사도면이므로 도면으로서의 진정성이 떨어지고 복본의 존재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본래 건축허가신청서는 청사진 도면으로 제책되므로 건축허가신청도면으로서의 진정성과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와 '신축공사설계도'는 국가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기록한 역사적 기록이자 직접적 관련 기록으로서 성당 건물과 상호 연계된 통합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9.11.19.)

- 군산 둔율동 성당 '성당신축기'는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계획수립·건축크기 및 배치도·건축기간·건축기금 등 전체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이며, '신축공사설계도'는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등 4점의 건축도면의 청사진본임
- 해당 유물들은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는 있으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둔율동 성당 역사의 기록물이고 진정성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권고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9.)

- 해당 유물은 등록문화재 제677호 '군산 둔율동 성당'의 건축공사와 관련된 기록 및 설계도서로서, 둔율동 성당의 진정성 확보와 건축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서는 중요한 자료임
- 다만, '신축공사설계도'는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므로 보존가치는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성전신축기'는 동산문화재적 가치는 다소 미흡하나, 둔율동 성당과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는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도등록 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19.11.19)

- 군산 둔율동 성당의 '성전신축기'는 해당 성당의 인허가 관련 사항·착공 및 완공 기록·신축 관계자 명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유물이며, '도면(청사진)'은 성당의 평면도·우측면도 및 정면도·제단실 및 제의실 상세도 등을 담고 있는 유물임.
- 이 중 성전신축기는 1950년대 당시 건축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상세히 담고 있으며, 동시대에 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한 기록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근대 건축기록물로 가치는 있음. 그러나 기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와 비교할 경우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신축공사설계도
2.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둔배미길 24, 군산 둔율동 성당
3. 소유자 : 재단법인 천주교 전주교구 유지재단
4. 조사자 의견('19.11.19.)

<문화재위원 ○○○>

1) 현상

-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질이 다소 떨어지는 종이이기 때문에 향온 향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 보관이 필요함.

2) 내용 및 특징

- 군산 둔율동 성당은 1915년에 군산 공소로 시작하였고 교세가 확장되어 1931년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군산 천주 교회(군산 성당)'로 불렸고 1944년에 현재 성당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하였음. 현재 성당은 한국전쟁 이후, 1955-57년에 신축한 건물이며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음(등록문화재 제677호). 교세가 확장되고 군산 시내에 제2성당 설립의 요구로 1961년에 '군산 월명동 성당'을 분리 신설하면서 '군산성당'은 '군산 둔율동 성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성전신축기>는 낱장의 기록물을 한 권으로 첩해놓았으며 표지에는 “一九五五年度, 聖殿新築記, 群山教會”라는 목서가 있음. 내용은 1955년에서 1957년까지의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자료임. 작성자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계획 수립, 건축 크기 및 배치도, 건축 기간, 건축기금, 건축기술자 명단 및 인부, 건축인허가, 지출액, 낙성식 등,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음. 건축물의 배치, 성당 파사드, 제대 부분 등의 기본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음.
- <신축공사설계도>는 4점 건축도면(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종탑 상세도)의 청사진본임. 제7대 서정수 신부가 성당 신축을 위해 당시 군산시 소재 '허만건축사무소'에 의뢰하여 작성한 것임.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건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둔율동 성당의 신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로 역사적 가치가 있음. 특히 군산 둔율동 성당은 일제강점기에 공소로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성당이며, <성당건축기>는 6.25전쟁 직후에 신축한 성당의 건축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록했다는 점에서 종교사 및 건축사에서 가치가 있음. <신축공사설계도>는 청사진본이고 현재 건축물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다소 발견되나 성당의 기본 도면이기 때문에 보존 가치는 있음.

- 그러나 둔율동 성당 자체를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 시에 이미 <성당건축기>의 가치가 인정되었던 점, 그리고 <신축공사설계도>는 원본이 아닌 청사진본인 점에서 보면,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됨. 다만, 둔율동 성당 역사의 기록물이고 진정성이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할 것을 권고함.

4)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향온 향습 시설이 있고 햇빛이 차단된 수장고에 보관할 것을 권함.

<문화재전문위원 ○○○>

1) 조성연대

- 성전신축기 : 1955년~1957년(11월)
- 신축공사설계도 : 19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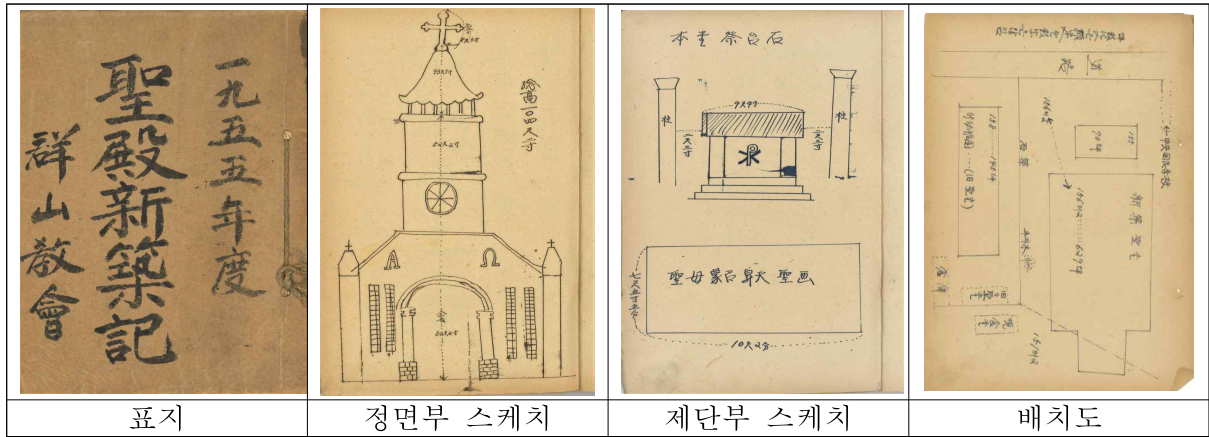
2) 현상

- 현재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보다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장시설을 갖춘 박물관 등에 위탁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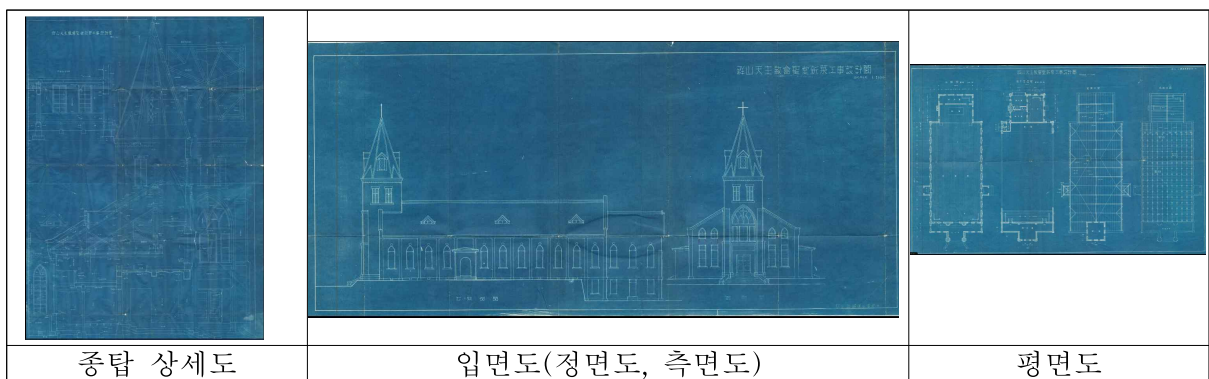
3) 내용 및 특징

- 동 ‘성전신축기(聖殿新築記)’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등록문화재 제677호로 등록된 ‘군산 둔율동 성당’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 및 설계도서로 현재 성당 측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음.
- 둔율동 성당은 1915년경 군산 공소로 시작하여, 1931년 1월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1944년에 현재의 부지로 옮겨 오게 되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도 교세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1954년 7월 17일 새로운 성당 신축 계획을 세운 후, 1955년 3월 24일 공사를 착공하여 1955년 8월 17일 준공되었음.
- 또한, 성당이 준공된 이후에도 교세가 날로 확장하여 1961년 ‘군산 월명동 성당’이 분가됨에 따라 성당 명칭을 최초 ‘군산성당’에서 ‘군산 둔율동 성당’으로 변경하였음.
- 성당 신축과 관련하여, 계획수립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은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번 등록 신청한 ‘성전신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 작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먼저, ‘성전신축기’는 성당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계획 및 시공 등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 걸쳐 여러 자료들을 정리한 것으로 1955년부터 1957년(11월)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음. 다만, 작성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록이 없어 확인 할 수 없음.
- 23.5cm(가로)×18cm(세로)의 규격에 표지를 포함하여 총 112쪽(단면 혹은 양면)의 분량으로 건축인허가에서부터 지출액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사항으로는 내용 중에 스케치(배치, 성당 정면, 제대석 등)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다만, 스케치 자료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당시 주임신부이었던 서정수 신부가 직접 프리핸드로 적성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음.

- 성전신축기를 통해 둔율동 성당은 1955년 3월 24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착공 인가는 1955년 3월 29일 득하였고, 공사는 1955년 3월 11일 착공하여 8월 16일 준공 후 8월 17일 낙성식을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 ‘신축공사설계도’는 제7대 서정수 신부가 성당 신축을 위해 당시 군산시 소재 건축설사무소인 ‘허만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건축허가신청서(시방서 포함)’와 함께 ‘군산 천주교회 성당 신축공사 설계도’서 4장이 전하고 있음.
- 당시 허만건축사무소의 대표건축가인 허만은 광복 이전에는 일본 건설회사에 근무하였으며, 1962년 당시 전라북도 최초 건축사로서 지부장을 역임. 이후, 회사명을 호남건축설계사무소로 바꾸었으며, 1975년 당시 작성된 호남건축설계사무소 건축공사설계감리업무경력서에서 군산천주교당을 설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
- 건축허가통지서 및 시방서는 원본으로 보이나, 건축도면은 직접 드로잉한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며, 이중 ‘종각평면도 및 단면도’의 경우에는 도면 작성 체계가 다른 도면과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어 작성 시기 등 그 내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용상의 요구로 성당 내외에서 마감재 등의 크고 작은 변형이 있어, 최초 건립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없어 설계도면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첩탐의 경우에는 확실히 다른 모습으로 시공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4)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둔율동 성당의 등록문화재적 가치를 제고 시키는 것은 성당 신축을 위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여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임.

- 따라서, 이 번 등록 신청한 ‘성전신축기’ 및 ‘신축공사설계도’는 둔율동 성당 건물의 진정성 확보와 건축적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임.
- 다만, ‘신축공사설계도’의 경우 원도가 아닌 청사진본이라는 점에서 보존 가치는 크지 않다고 보여짐. 이에 반해 성전신축기는 동산 문화재적 측면에서 가치는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현존 건축물(둔율동 성당)과 공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사적 가치는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을 권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 >

1) 현상

- 성전신축기는 붉은색 세로쓰기 형식의 용지에 청색 잉크로 작성되었고, 대략 112 쪽 분량임. 전체적인 보존 상태는 양호함.
- 도면은 청사진 형식으로 4장의 낱장으로 구성됨.

2) 내용 및 특징

- 성전신축기는 군산 둔율동 성당이 신축되던 1955년을 전후한 시기에 작성된 몇 가지의 서로 다른 자료가 합쳐져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지에 1955년으로 기록되어 있어 최초 작성 시기는 건축물이 준공되던 당시였던 것으로 판단됨.
- 제대석이나 종탑 관련 스케치 등은 성당에 대한 설계 과정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1956년과 1957년에 진행된 방수공사와 관련된 기록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1955년 준공 이후의 기록도 추가되어 구성됨.
- 성전신축기를 구성하고 있는 자료들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성당 신축 관련 스케치, 성당 신축 대지
 - 인허가 관련 사항, 착공 및 완공 기록
 - 성당 신축 공사비 모금 관련 기록(각종 기금, 기성금 포함)
 - 성당 신축 관계자 명단(성당 측 관계자 및 기술자 명단)
 - 공사부별 세부 지출 내역
 - 일부 세부 공사별 기록(공사 기간, 인력, 공사비 등)
 - 방수공사 기록(1956년, 1957년)



防水工事 자료 표지

공사기간 관련 기록

期成金 特記

新築當時區域長 名單



木手技術者 名單



石工工事記



煉瓦部 지출액



煉瓦部 지출액 상세

- 성전신축기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부분이 공사비와 관련된 부분으로 총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록함. 연와(煉瓦), 목재(木材) 등과 같은 재료에 의한 구분, 목수공임(木手工賃)과 같은 기술자에 의한 구분, 미장공사(美裝工事)와 같은 공종에 의한 구분 등으로 구분함.
- 16개 항목으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많은 공사비가 지출된 것은 건축물의 주된 자재인 벽돌 자재 구입 비용 및 벽돌공 인건비지만 목재 구입 비용과 목수 인건비를 합하면 목공사 관련 공사비 지출이 가장 많음.
- 이상의 항목별 공사비 지출은 다시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음. 날짜별로 공사비 지출이 기록된 항목은 煉瓦部, 境治石部, 木材部, 洋灰(세멘트)部, 砂利(모래)部, 飮食物代, 塗料 및 染料部, 電氣部, 鐵物部, 수사部, 海草部, 白灰(石灰)部, 鍼錫部의 순으로 총 12개 부(部)로 구분함.
- 각 부별 상세 내역은 지출 일자와 지출 내역, 지출 금액으로 구성됨. 지출 내역에는 해당 지출의 내용과 수량, 단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성전건축기에 수록된 성당 신축 과정과 관련된 각종 인물에 대한 기록은 당시 공식적인 건축주였던 서정수 신부를 비롯하여 구역장, 성당 신축 기금에 기여했던 신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음.
- 또한, 성당 신축에 참여했던 기술자에 대한 기록으로 기술자 명단은 목수, 연와, 미장, 석공 등의 순으로 7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함. 각각의 기술자에 대해서는 주소와 이름을 기록하였고, 세례명이 있는 경우 이름 뒤쪽의 괄호에 세례명을 병기함. 총 22명의 기술자 이름이 기록됨.
- 목수기술자에서는 도목수와 부도목수, 목수를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연와기술자에서는 지휘기술자와 기술자로 구분함. 세례명이 기록된 기술자는 총 6명이고 그중 목수가 5명임. 주소가 기록된 기술자는 총 17명이고 주소가 군산시로 기록된 기술자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익산군 3명, 옥구군 2명임. 주로 군산에 거주하는 지역 기술자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졌음.
- 청사진은 군산 둔율동 성당의 평면도, 우측면도 및 정면도, 제단실 및 제의실 상세도, 종각 평면도 및 단면도의 4장으로 구성됨.
- 청사진의 정면도와 성전신축기의 정면 스케치, 현존 성당의 정면을 비교해 보면 청사진이 성전신축기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허가를 위한 목적에서 청사진을 작성하였고, 성당 측에서 종탑 정면에 대한 수정요청안을 스케치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됨. 성전신축기의 스케치에 따라 실제 공사 과정에서 성당 측의 생각이 반영되어 현재와 같은 성당의 정면이 완성된 것으로 추정됨.

3) 등록 가치 및 근거기준

- 군산 둔율동 성당 성전신축기는 1950년대 당시의 건축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공사 내역과 관련 기술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으로 동시대에 이와 같은 수준의 상세한 기록을 우리 근대 건축물 관련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성전신축기의 일별 상세 내역을 통해 당시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자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사용하지 않거나 드물게 사용하는 자재 용어나 공사 관련 용어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도 역사적 기록물로서 성전신축기가 갖는 의의임.
- 또한, 성전신축기에 수록된 기록 및 청사진, 신축허가신청서 등 기타 관련 기록 등을 통해 군산 둔율동 성당의 배치 및 입면 등에서 초기 설계안과 현재의 성당이 신축되기까지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음.
- 근대 기록 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기 등록된 국가등록문화재 중 기록 유산과 비교할 때 국가등록문화재로서는 그 가치가 다소 미흡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의 등록 추진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7. 「전남대학교 용봉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전남대학교 용봉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9.7.)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5.6.)를 실시하고, 제6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20.7.28.)에서 '전남대학교 용봉관 증개축 내력 자료 보완'하라는 사유로 보류되어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전남대학교총장
- (2) 대상문화재명 : 「전남대학교 용봉관」
 -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 소유자 : 교육부(전남대학교)
 - 수량 : 1동
 - 건축면적 : 798.78㎡(건축물대장/5층)
 - 연면적 : 2,540.76㎡
 - 건립시기 : 1957년
 - 구조 : 시멘트벽돌조(건축물대장)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6.25.) : 근현대 교육시설 문화재 등록 권고(문화재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 ('18.9.7.) : 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광주광역시 북구청 → 문화재청)
 - ('20.5.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7.28.) : 2020년 제6차 근대분과위원회 보류
 - 사유 : 전남대학교 용봉관 증개축 내력 자료 보완
 - ('20.9.16.) : 보완자료 제출(전남대 → 문화재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5.6.)

- 지금까지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석재로 건축된 것이 주류였으나, 전남대 용봉관은 해방후에 지역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대학교 본관 건축으로 근대건축사적 가치가 큼.
- 일부 증축된 부분과 재료의 교체가 있으나, 비교적 신축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증축과정이 전남대학교 성장사를 구성하고 있어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용봉관 건물 전체를 등록범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0.5.6.)

- 건축물 배면의 증축과 개구부 및 내부 마감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1950년대 광주, 전남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동시기 여러 대학에 지어졌던 대학교 건축물 중 하나로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20.5.6.)

- 전남대학교 용봉관은 현재의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최초 건립되었던 대학본부 건물로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으며, 건물 중앙부에 수직방향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과 평면을 처리한 수법 등은 50~60년대 공공건물에서의 즐겨 채용하던 디자인적 요소로서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음.
- 건립 과정에서 당시 건축비 절감 등을 위해 교내에 '연화 공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벽돌을 사용하는 등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성도 있어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전남대학교 용봉관 (구) 전남대학교 본관
2. 용 도 : (현) 전시/교육연구시설 (원) 교육연구시설
3.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4. 소유자 : 전남대학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5. 시설물 개요
 - 설 계 : ○ ○ ○
 - 시 공 : 미상
 - 구 조 : (벽체) 조적조, (슬래브)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년도 : 1957년
 - 수량 및 면적 : 1동, 연면적 2,540.76㎡, 건축면적 798.78㎡(건축물대장)
 - 층수(높이) : 지상 5층
6. 조사자 의견('20.5.6.)

<문화재위원 ○○○>

1) 개요

- 전남대학교 용봉동 캠퍼스의 본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캠퍼스 정문에서 용봉관에 이르는 축이 형성되어 있다. 중앙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적 구성을 갖고 있는 고전적 구성의 건물이다.



용봉관과 주변 전경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조적조 내력벽체와 철근콘크리트슬래브가 혼용된 구조로 지어진 건축이다.
- 중앙의 시계탑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으로 건축되었으며, 좌우 입면은 조적조 내력벽체가 갖는 세장형 창호로 구성되었다.
- 중앙 탑 최상부의 미세한 매스 조정을 통해 크기를 줄이는 구성으로 단순한 사각형 매스에 변화를 주고 있다.
- 현관 포치의 사각형 구성과 전면의 수직선을 강조한 디자인 그리고 중앙탑 상부의 구성은 조적조 건축에 모던한 감각을 부여하고 있다.



주출입구와 중앙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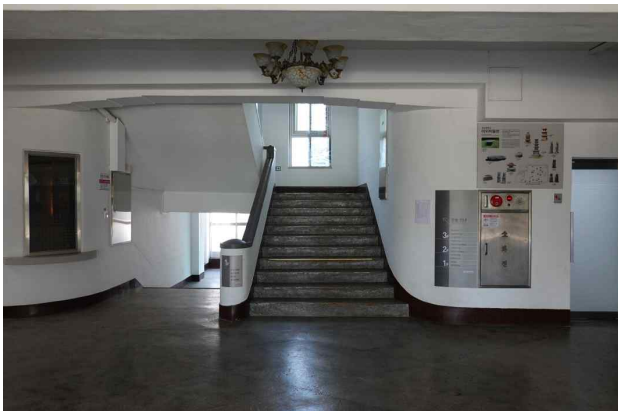


전경



후면

- 전면의 좌우 대칭 구성에 비해 측면과 후면은 미묘한 차이를 갖는 비대칭적 구성을 갖고 있다. 이는 첫 건축후 수차례 작은 증축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 주출입 중앙홀의 계단실 주변이 곡면으로 처리되고 상부 보의 현치를 단단으로 처리하여 출입부분의 높이를 확보한 것은 기능적임과 동시에 미학적 효과까지 갖고 있다.



중앙홀과 계단



중앙홀과 복도

- 각 층은 중복도로 구성되었으며 중앙 계단을 통해 탑의 상부로 연결된다.
- 바닥은 인조석 물갈기로 마감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채색 인조석 물갈기가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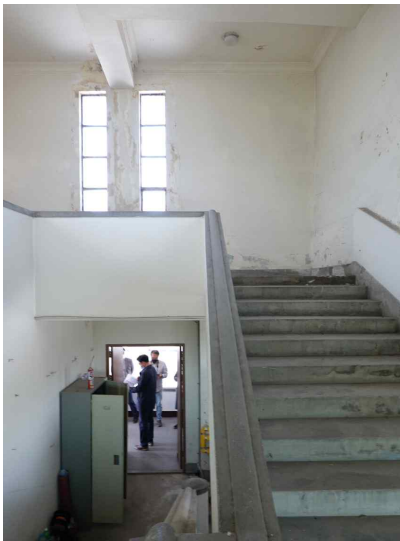


역사전시실 내부



천정 디자인

- 2층에 일부 실 천정에는 원형과 별포 모습의 디자인이 남아있다.
- 중앙계단은 탑 상부까지 같은 크기로 연결되어 있음.



중앙탑 내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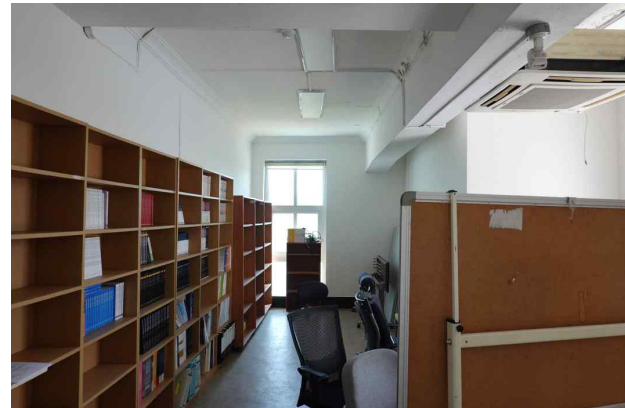
중앙탑 구조



중앙탑 상부



옥탑과 중앙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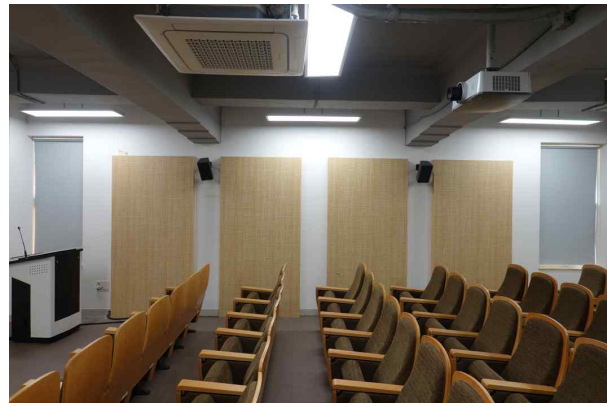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중앙탑 일부

- 중앙탑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구체위에 조적조로 마감되었으며, 외부 벽돌이 교체되었음.
- 중앙탑의 구조는 다소 과장되어 처리되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원 모습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후면의 일부 증축으로 인해 일부 변형이 있으나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유지되어 있음.
- 역사전시실과 사무실로 사용되는 공간이 리노베이션되었으나 원 구조체를 훼손하지 않아 원 구조는 잘 남아있음.
- 중앙탑 외벽체를 구성하는 조적조 일부가 신재료로 교체됨
- 중앙탑 일부에서 누수가 있고, 일부 창호의 상태가 훼손되었음.
- 역사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음.



강의실과 내부 구조체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 역사관과 연구소로 사용되고 있어, 보존관리 상황은 매우 양호하며 학교 캠퍼스의 진입로 정면에 위치하여 상징성이 매우 높은 건물임.
- 용봉관은 입지와 진입경관이 캠퍼스의 상징적 성격을 갖고 있고, 주변의 물리적 환경도 매우 양호함.



진입 경관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입지와 모습이 캠퍼스 형성 초기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신축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역사관으로 사용되고 있어 근대건축의 보존과 활용의 원칙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관을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역사관 및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지금까지 등록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는 건물이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건물로 석재로 건축된 것이 주류였으나, 전남대 용봉관은 해방후에 지역 건축가에 의해 설계된 대학교 본관 건축으로 근대건축사적 가치가 크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일부 증축된 부분과 재료의 교체가 있으나, 비교적 신축 당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고, 증축과정이 전남대학교 성장사를 구성하고 있어 등록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용봉관 건물 전체를 등록범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전남대학교 구분관(용봉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전남대학교 용봉관은 1950년대 후반에 지어진 대표적인 지방 국립대학교의 본관 건축물로서 조적조와 철근콘트리트조를 혼용한 5층 규모에 외장은 벽돌로 마감함. 건축물의 외관은 전체적으로 단순하나 중앙부를 사각탑의 형태로 디자인하여 대학교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있음.
- 1950년대에 지어진 광주,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같은 시기에 전국적으로 대학 캠퍼스에 지어진 대표적인 교육시설 중 하나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전남대학교 용봉 캠퍼스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로서 중앙부의 사각탑과 패러펫 상단의 장식적 처리를 제외하고 붉은 벽돌로 처리된 단순한 외관임.
- 중앙 부분을 5층 규모의 사각탑 형태로 높게 만들고 좁은 수직창 사이 벽체를 돌출시켜 수직성을 강조하고 캐노피를 두어 전체적으로 중심성을 강조하여 표현함.
- 중앙 사각탑은 점차 크기가 줄어드는 3단으로 구성하면서 콘크리트보를 돌출시켜 사각형 형태의 기하학적 변화를 통한 조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사각탑을 중심으로 좌우 외관은 대칭으로 구성하고, 수직창을 연속시킨 개구부 형태와 붉은 벽돌의 외벽으로 입면을 간결하게 구성함.
- 내부 공간은 현재 3층까지 중복도를 중심으로 공간이 구획되어 있으나 증축 이전에는 2층과 3층은 배면 쪽으로 편복도가 있는 구성이었을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남대학교 용봉관에서 확인되는 가장 중요한 변형은 2층과 3층의 배면 방향 증축이었던 것으로 추정됨. 정확한 증축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단계적으로 증축이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각종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해보면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후반 정도의 시기에 증축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건축물의 내부와 각종 설비에 대한 크고 작은 보수 공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을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80년대 후반부터의 기록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보수 공사로서 1997년 전체적인 보수 공사가 있었고, 2012년 역사관 전시시설 설치와 함께 승강기 설치 및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현재까지 신축 당시와 동일하게 대학의 교육시설로 잘 활용되고 있으며, 전남대학교 측에서 건축물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고 그동안 양호하게 관리해 왔던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보존관리 여건 및 환경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의 교육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보존관리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학 측이 건축물의 역사성을 인지하고 있고 보존을 위한 의지를 갖고 있어 현재 수립된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까지 전체 등록문화재 중 학교 관련 건축물은 약 70건 정도임. 다수의 건축물이 일제강점기 건축물로 1950년대 이후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소수임.
- 대학교 건축물로는 서울대학교 구 공과대학,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등에 소재하는 건축물로 약 20건의 등록문화재가 있음.
- 전남대학교 용봉관은 등록문화재인 학교 관련 건축물 전체 및 대학교 건축물과 비교할 때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축물 배면의 증축과 개구부 및 내부 마감 등에서 변형이 확인되지만 1950년대 광주, 전남에 지어진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동시기 여러 대학에 지어졌던 대학교 건축물 중 하나로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관 및 공간구성, 구조체계, 마감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전남대학교 용봉관'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건물은 전남대학교 대학본부로 사용되었던 건물로 1957년 최초 건립되었으며, 1996년에 대학본부를 다른 곳으로 옮겨 짓게 됨에 따라 사회교육원으로 등으로 사용되어 왔고, 2012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현재는 5·18 기념관, 대학역사관, 호남학연구원 등 전시 및 연구시설로 활용하고 있음.
- 전남대학교는 과거 독립광주농과대학(1909년~), 독립광주의과대학(1944년~), 독립목포상과대학(1920년~), 사립대성대학(1947년~) 등 4개의 단과대학을 개편·통합하고 추가적으로 공과대학을 인가 받아 1952년 6월 종합대학으로 개교하였음.
- 이 당시 대학본부는 의과대학(광주광역시 학동 소재) 내에 위치하였으나, 1954년 오늘날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캠퍼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957년에 대학본부 건물을 새롭게 신축함에 따라 이전(移轉)해 왔음.

- 관계자 증언 등에 따르면, 대학본부 건물은 당시 전남대학교 교직원(영선계장으로 추정)으로 근무하였던 김성추라는 인물이 설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 등의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음.
- 교내 대학신문인 『全南大學』 1957년 10월1일(43호), 12월15일(45호)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총건평 620.63평(坪)의 연와조(煉瓦造) 6층 건물로 총공사비 칠천만원(七千萬圓)이 소요되었던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흥미로운 것은 준공 당시, 건물의 매 층마다 설치되었던 배란다가 특색 있는 건축 요소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임. 다만, 현재는 여러 차례의 증·개축이 있어 현재는 과거 배란다의 일부 모습만 남아 있음.
- 이밖에, 대학본부 건물에 사용된 붉은 벽돌은 당시 재료비 절감을 위해 1954년 교내에 설치하였던 연와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3층 규모의 조적조 건물로서 1~3단의 화강석 기단 위에 세워졌으며, 옥상 중앙부에는 수직으로 높게 세운 탑상형의 공간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평면을 구성하고 있음.
- 입면은 수직창호와 수평돌림띠 등 수직, 수평의 건축적 요소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건물 중앙과 양단부를 전면으로 돌출시켜 볼륨감 있게 처리하는 등 대학본부로서의 상징성을 표현하였음.
- 평면 구성은 대학본부의 성격에 맞게 업무 및 사무 공간 등으로 구획하였는데, 준공 당시 대학신문에 실린 기사내용에 따르면, 1층은 중앙 홀, 교무과, 학생과, 학적과, 총무과, 경리과, 각과장실, 응접실, 학감실, 학생감실, 수위실 등이 있었으며, 2층은 총장실 및 부속실, 교학국장실, 사무국장실, 학장실을 두었고 3층에는 대학원장실 및 서무과, 서고, 회의실, 물품고, 영선계실이 위치하였음. 또한, 옥상에 설치한 탑상형의 공간 내부에는 별도의 양수실(揚水室)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보임.
- 옥상에 설치한 탑상형 공간은 통상적으로 4층~6층으로 높이로 구획하였으며, 양수실이 설치된 4층을 제외한 5층~6층은 통층으로 처리하였으나, 정확히 어떠한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음.
- 과거 사진자료에 따르면, 최초 대학본관으로 건립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증·개축 및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내·외부의 공간 변형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즉, 1985년을 전후로 좌·우 측면 및 배면에 일부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내 공간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앞뒤로 각 실들을 배치하고 있으나, 본래는 1층을 제외한 2층~3층은 편복도로 하여 전면부에 각 실들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됨(건물 배면의 증축 과정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때 2층과 3층에 설치되었던 발코니가 대부분 사라지고 현재와 같이 우측면 일부에만 남게 되었으며, 이밖에도 80년~90년대를 기점으로 강의실 확보 등을 위해 3층 옥상에 간이건축물을 여러 차례 설치, 철거를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임.
- 대학본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면서 내부공간의 변형이 있었는데, 그 중 2012년 대학역사관 등 전시시설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비교적 큰 내부 공간변화가 있었음(이때 1층 수위실 뒤편으로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되었음). 반면, 2층 좌측편 공간에서는 대학본관 당시 총장실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음.

- 출입은 정면 중앙의 주출입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면으로는 계단과 함께 상부에 포치를 설치하였고, 좌우측으로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완만한 곡률의 램프를 두어 대학본부로서의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주출입구 안쪽으로는 비교적 넓은 중앙홀을 두었고 그 건너편에는 계단실을 설치하여 이것을 통해서 상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음.
- 창호의 창틀 등은 신재로 교체되었으나 개구부 등의 기본적인 형태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임. 과거 기록사진에 의하면, 창호는 격자형 창살의 오르내리창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임. 또한, 창호 상부에는 벽돌을 길이방향으로 세워 평아치를 만들었으며, 하부에는 빗물이 흐를 수 있도록 경사지게 창대석을 놓았음.
- 최초 건립 당시에는 건물 후면과 양측면으로 연와조의 굴뚝이 다수 있었으나, 1985년경 증축 공사 과정에서 대부분 소실되었으며, 현재는 건물 외벽 일부에서 굴뚝의 흔적만을 확인할 수 있음.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 작성된 도면이 현존하지 않아 원형보존 상태 및 변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 다만, 일부 공간이 증축된 것은 확인되었으나, 본래 구조체 등에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됨.
- 현재도 계속해서 사용 중에 있어, 보존 및 관리에 따른 노후화 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학 측에서는 동 건물이 현 캠퍼스 조성 이후 최초로 건립된 대학본부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산물로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며, 현재도 대학역사관 등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향후 캠퍼스 확장 및 개발로 인한 훼손 및 멸실 우려는 적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학역사관 및 5·18 기념관 등 전시시설과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대학의 역사와 함께 5·18과 관련된 역사 교육의 시설로서 폭 넓게 활용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대학 캠퍼스 본관 건물이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는 전국에 걸쳐 다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내에는 ‘광주교육대학교 본관(등록문화재 제97호)’과 ‘광주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관(등록문화재 제590호)’ 등이 있음.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동 건물은 현재의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최초 건립되었던 대학본부 건물로서 상징성 및 역사성이 있으며, 건물 중앙부에 수직방향으로 높게 처리한 탑상형 구조물과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의 입면과 평면을 처리한 수법 등은 50~60년대 공공 건물에서의 즐겨 채용하던 디자인적 요소로서 시대적 상황을 엿볼 수 있음.
- 또한, 건립 과정에서 당시 건축비 절감 등을 위해 교내에 '연화 공장'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생산된 벽돌을 사용하는 등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희소성도 있어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과거 사진자료에 따르면, 최초 대학본관으로 건립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증·개축 및 다양한 기능을 사용되는 과정에서 내·외부의 공간 변형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즉, 1985년을 전후로 좌·우 측면 및 배면에 일부 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실내 공간은 중복도를 중심으로 앞뒤로 각 실들을 배치하고 있으나, 본래는 1층을 제외한 2층~3층은 편복도로 하여 전면부에 각 실들이 위치하였던 것으로 판단됨(건물 배면의 증축 과정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정황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광주전남대학교 구 본관」

8.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경남 통영시 소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9.10.29.)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0.8.4.)를 실시하고, 제8차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20.9.22.)에서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자료 추가 조사'를 사유로 보류되어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통영시장
- (2) 대상문화재명 :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25(항남동 241-1번지)
 - 소유자 : 경상남도 통영시
 - 수량 : 1동(2층)
 - 건축면적 : 169.56㎡(건축물대장)
 - 연면적 : 306.49㎡
 - 건립시기 : 1936년(건축물대장)
 - 구조 : 목조, 기와 지붕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9.10.29.)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남도→문화재청)
 - ('20.8.4.)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0.9.22.) : 제8차 근대분과위원회 **보류**
 - 사유 :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기능 역할에 대한 확인자료 추가 조사
 - ('20.10.21.) : 보완자료 제출(양성소 기능역할 및 이중섭 관련 사실 확인 자료)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0.8.4.)

- 본 근대유산은 건축적 가치보다는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 가능하게 한 사회사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타 일제강점기 유산과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단, 나전칠기 기술인양성소로 사용된 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함.
- 나전칠기 전문가 양성소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 현재의 내부공간을 양성소로 사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의 외관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쳐 외관 등을 회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 내부공간은 신축 당시보다는 양성소로 사용하던 시절의 흔적에 대한 정밀 조사과 관련자 증언을 통한 고증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20.8.4.)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개구부 구성, 내외부 마감재료 등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 및 화가 이중섭과 관련된 건축물로서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남측 부분 지붕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보존이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20.8.4.)

- 건물17)의 경우 내부구조 및 마감은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 사용될 당시의 원형과 변형이 되었으나 목구조 및 지붕구조 및 기와형식의 원형이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교육시설(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등록 시 명칭 및 원형 복구 가능성여부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1936년 최초 건립된 290㎡의 부분과 1984년 4월 증축된 16.2㎡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며 등록 범위는 1936년 최초 건립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7) '84년 증축된 것으로 보이는 16.2㎡를 제외한 290.39㎡ 부분

<붙임1>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보완자료】

-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기능 역할에 대한 추가 자료

□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설립동기 등 개관

* 통영시여성포럼 주최, 심포지움 <통영나전칠기, 회고와 전망> 발제 논문 **발췌**
(일시 : 2011. 8. 21. 장소 : 통영시민문화회관. 발제자 : ○○○)

•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 다음해(1946년)에 나전칠기가 상공부의 수출장려품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제 자리를 잡는 듯 했다. 그러다가 1950년 6·25동란이 발발하여 모든 생산 활동이 중단되자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부 인사들은 통영이 나전칠기의 주산지이고 전쟁의 피해가 없는 안정지역이므로 힘을 모아 나전칠기 산업을 되살려보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일제치하에서 변질된 나전칠기를 다시 민족적 전통공예로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 8월 10일 통영군(統營郡)에서 나전칠기산업의 지속적인 육성 과 기능인 양성을 위한 나전칠기강습소(螺鈿漆器講習所)⁸⁾를 설립하였다. 수강생 정원은 40명, 수업기간은 2년, 교과목과 그 강사진은 나전칠기에 김봉룡(金奉龍), 도안 및 설계제도에 유강열(劉康烈)⁹⁾, 옷칠기법에 안용호¹⁰⁾, 소묘 및 데상에 장운성¹¹⁾, 그리고 건칠 특강에 강창규(姜昌奎)¹²⁾ 등이었다.

그 후 1년 만인 1952년 12월 도립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¹³⁾로 개칭하였으며, 1955년에는 연구부를 신설하여 2년 수료 후 희망자는 다시 연구생으로 입학하여 나전부(螺鈿部)와 칠부(漆部)로 나누어 1년의 심화과정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추가 강사진은 끊임질에 심부길(沈富吉)¹⁴⁾, 연구부의 나전부에 구복조(具福祚)¹⁵⁾, 칠부에 임성춘(林成春)¹⁶⁾이 담당했다. 그리고 1956년 김봉룡(金奉龍) 선생이 기술원양성소 부소장겸 나전칠기 담당강사로 취임하고 김성수(金聖洙)¹⁷⁾ 선생이 나전칠기 강사를 맡았으며, 1960년부터는 수료과정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8) 忠武市, 『統計年報』 1964. 및 『忠武市制十年誌』 1965. 참조, ‘충무공예학원(忠武工藝學院), 동호동230번지, 원장 金炯董, 4학급, 교원 4명, 학생 59명’.
9) 현 통영시 문화동 238번지 통영문화원(統營文化院) 건물(등록문화재 제 36호 지정).
10) 김성수(金聖洙, 1935~), 통영 출생, 1953년 ‘統營螺鈿漆器講習所’ 제1회 졸업, 1956년‘慶尙南道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 강사, 1961~‘63년‘忠武工藝學院’ 강사, 1963~66년 國展 공예부 4회 특선, 196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72년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2006년 통영옷칠미술관 관장.
11) 임성춘(林成春), 통영 출신으로 당대 최고의 옷칠 장인.
12) 구복조(具福祚), 통영 출신으로 나전칠기 강사.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제3회 졸업기념 사진(1960. 4. 14.)

1962년 8월 독립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의 운영권을 충무시(忠武市)로 이관하여 시립 충무공예학원(忠武工藝學院)으로 개칭하고 옛 통영청년단회관(統營靑年團會館) 건물18)로 이전 개원하였다. 이어서 충무시의 나전칠기공예육성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여 1965년 7월 28일 경남공예협동조합(慶南工藝協同組合)(가입업체 93개)을 설립하고 그해 9월 25일에는 동호동(東湖洞) 남망산공원(南望山公園) 내에 건평 200평 규모의 현대식 충무공예학원 교사를 신축 준공하였다.¹⁹⁾ 그러나 곧이어 기능공 양성 위주의 실업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 결국 1971년 충무공예학원은 충무시공예연구소(忠武市工藝研究所)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에 연구소를 닫고 그 관리권은 경남공예협동조합으로 이관되고 말았다.

13) 심부길(沈富吉, 1906~1996), 서울 출생, 1916년 全成圭 문하생, 鮮展 공예부 특선, 1952년 통영 '慶尙南道 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 강사(5년간), 1956년 서울에서 공방 운영, 197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4호 뚝섬질 기능보유자 지정.
 14) '慶尙南道 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 현 통영시 항남동 240번지.
 15) 강창규(姜昌奎, 1906~1977), 경남 함안 출생, 1935년 동경 우에노미술학교 칠공예과 졸업, 鮮展 6회 특선, 乾漆계의 한국인 최고 기술자로 인정받아 주로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광복 후에 귀국하여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국전심사위원, 1951년 '統營螺鈿漆器講習所' 강사, 1956년서 라벌예술대학 강사 역임.
 16) 장운성, 이북출신으로 소묘 및 데상 그리고 역사, 공예사 등의 이론 강의.
 17) 안용호, 이북출신으로 1930년대 후반'泰川漆工藝所'의 全成圭 문하생.
 18) 유강렬(劉康烈, 1920~1976), 함남 북청 출생, 1944년 동경 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 졸업, 1951년 '慶尙南道 螺鈿漆器技術員養成所' 강사주임, 1954년 국립박물관 과장, 1956년 서울대·이화여대 디자인·염색공예 강의, 196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19) 螺鈿漆器講習所, 현 통영시 문화동 110~113번지.

도립 경상남도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설립동기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여 화염속에 함포소리 총소리만 울리고 지금의 청와대는 부산에 있는 경남도청에 머물렀고, 온 국민은 남쪽으로 피난길이 끊어질 않고 모든 교육이 마비되어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파손된, 문화재의 복원과 계승발전을 위한 나전칠기 미술교육을 먼저 실행하자는 김재원(초대국립박물관장)박사와 문화예술인들의 건의에 의해 1951년 10월 기적 같은 도립 경상남도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가 통영에 설립되었다. 단순기술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옷칠칠기, 나전칠기 그리고 소묘(데생), 도안(디자인), 정밀묘사, 설계제도 등 전반적인 미술교육이 실시되었다.

- 학생정원 : 40명
- 교육연한 : 2년 교육비 전액면제
- 소장 : 경상남도 도지사 양성봉

- 강사진

- 김봉룡(1902~1994) 부소장 나전교육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나전장 제10호(1호지정)
20세기 세계가 극찬한 위대한 공예가(Artisan)
1925 세계장식공예만국박람회 나전칠기 대형화병 출품 은상수상, 프랑스 파리
- 유강렬 선생(1920~1976) 디자인·설계제도
일본미술학교 도안과 졸업생, 수복 후 홍익대학교 공예학부 신설 초대 공예학부장 취임.
- 안용호 선생 옷칠교육
- 강창규 선생(창원 1906~1977) 옷칠교육
현동경예술대 칠예과 제4회 졸업 연구과 (석사)/ 조선미술전람회 제4회 특선, 일본총리대상 상/ 조선총독부상(이왕가상)수상, 천황접견실의 실내옷칠장식 등. 협저칠기(乾漆) 건칠계 신화적 존재. 일본 옷칠예술의 거장.
- 이중섭 선생(1916~1956) 소묘 국민화가, 도쿄 제국대학 입학, 문화학원 졸업
- 장윤성 선생 소묘(데생) 일본 태평양미술학교 회화 전공.

※ 김성수 통영옷칠미술관 관장, 1951년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제1회 졸업생, 20세기 사상초유 전통나전칠기(옷칠과 나전) 미술교육이 실시되었던 곳이다.

□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내부 및 수업 관련 사진



1. 1957년 나전칠기양성소 김성수 실기지도



2. 1957년 학생작품전시회 제2회 포스터(김성수제작)



3. 1957년 나전칠기양성소 제2회 학생작품전시회-1



4. 1957년 나전칠기양성소 제2회 학생작품전시회-2



5. 1957년 나전칠기양성소 제2회 학생작품전시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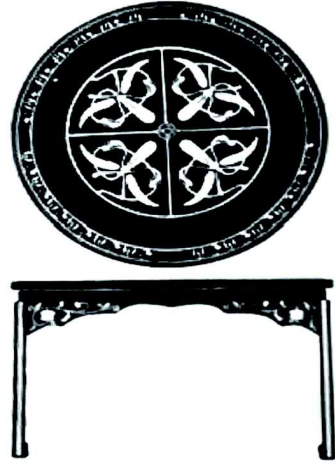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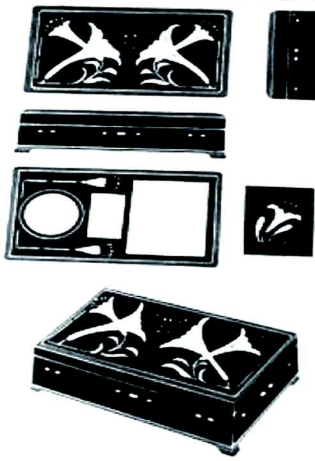
6. 1957년 나전칠기양성소 제2회 학생작품전시회-4



7. 1957 나전칠기양성소 학생 작품 전시 장면



8. 1957 나전칠기양성소 학생 작품 전시 장면-1



9. 미술실기지도 디자인수업 학생습작_김성수 지도



10.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제3회 졸업기념 (두번째줄 맨왼쪽-강사 김성수)-1960.04.14.

□ 기타자료



항남동 나전철기기술원양성소 지적도_○○○ 제공



1952년 초겨울. 이중섭, 유강렬, 안용호

□ 이중섭 관련 자료 (관련자료 3건 참조)

※ 화가 이중섭이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건물에서 소 그림을 그렸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통영에 기거하면서 소 그림을 그린 것은 맞음. 다른 지역의 소와 통영의 소에서 보이는 특징에 차이가 있음.

• 관련자료 1 <이중섭 연보> - 통영에서 머문 기간

자료출처: 김순철, 2016, 『통영과 이중섭』, 도서출판 이든샘, 10-12p.

1916년 4월 10일 평안남도 평원군 조운면 송천리에서 출생

1923년(8세) 종로공립보통학교에 입학, 6년 내내 김병기와 한 반으로 지냄

1929년(14세) 오산고등보통학교 입학, 미술부에 가입하고 문학수를 만남

1931년(16세) 도화와 영어담당교사로 온 임용련과 만나 오산학교에서 미술학도와 화가의 꿈을 키움

1932년(17세) 원산으로 이주

1935년(20세) 오산학교 졸업,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 시립 제국미술대학에 입학

1936년(21세) 3년제 사립 문화학원으로 옮겨 입학, 김병기와 중등학교 선배 문학수를 만나 친밀하게 지냄

1938년(23세) 자유미술가협회 제2회 전람회 공모에 <소묘> 3점, <작품> 2점 출품, 유영국과 함께 협회상 수상

1940년(25세) 일본인 여성 야마모토 마사코와 사귀, 자유미술가협회 제4회 서울전에 <서있는 소>, <망월>, <소의 머리>, <산의 풍경>을 출품, 김환기, 진환으로부터 극찬을 받음

1941년(26세) 일본에서 활동하던 조선인 미술가들이 조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도쿄에서 창립전 개최, 4월 제5회 지유텐에 <망월>, <소와 여인>출품, 회우로 초대, 5월 경성에서 열린 조선인미술가협회에 출품

1942년(27세) 제6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소와 아이>, <봄>, <소묘>, <목동>, <지일>출품

1943년(28세) 제7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 태양상 수상, 평양 체신회관에서 김병기, 문학수, 황염수, 윤중식 등과 6인전 개최

1945년(30세) 5월 마사코(이남덕)과 결혼. 최재덕과 함께 지금의 미도파백화점 지하실에서 벽화를 그리고 사례로 받은 돈으로 불상 등 골동품을 사 원산으로 돌아감

1946년(31세) 조선조형예술동맹 가입

1947년(32세) 아들 태현 출생

1949년(34세) 아들 태성 출생. 원산 시외 송도원으로 이거

1950년(35세) 6·25동란 발발. 10월 원산 신미술가협회를 결성하고 회장이 됨. 12월 6일 중공군의 개입으로 국군과 UN군이 남하할 때 조카 영진을 데리고 화가 이상돈과 함께 부산으로 남하

1951년(36세) 봄 제주도 서귀포로 피난. 이곳에서 〈서귀포의 환상〉, 〈섬섬이 보이는 풍경〉, 〈바닷가와 아이들〉 등을 그림. 12월 경 다시 부산 (범일동)으로 옮겨와 오산학교 동창 김종영의 도움으로 범일동 골짜기 판잣집 단칸방을 얻어 네 가족이 어렵게 생활

1952년(37세) 친구들의 주선으로 종군 화가가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음. 이 무렵 양담배갑 속의 은박지를 이용 은지화를 그림. 동향인 유강렬(염색공예가, 경상남도나전칠기강습소 주임교사)의 권유로 늦은 봄 통영으로 옮겨 옴. 7월 부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인 수용소의 제3차 귀환선으로 친정(일본)으로 돌아감. 늦가을 녹음다방에서 유강렬, 장윤성, 전혁림 등과 함께 4인전 개최. 이어 12월 부산 르네상스 다방에서 손응성, 한묵, 박고석, 이봉상 등과 기조 동인을 결성하여 동인전을 가짐

1953년(38세) 경상남도나전칠기강습소에서 유강렬과 함께 기거하면서 전혁림, 장윤성, 김용주, 청마 유치환, 김상옥 등과 교류하였고 김기섭 초대 민선 충무시장, 김용제를 비롯

한 지역 유지들의 도움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하였다. 그 해 약 40여 점의 작품으로 항남동 성림다방에서 개인전 개최. 시인 구상이 지삼만에게 부탁하여 선원증을 발급받아 일본으로 건너가 극적으로 가족을 만나고 약 1주일 만에 귀국함

1954년(39세) 봄 통영을 떠나 진주에서 박생광의 도움으로 개인전을 가짐. 6월 25일 경북궁 국립미술관에서 대한미술가협회와 국방부가 주최한 6.25 4주년 기념 대한미술전에 〈닭〉, 〈소〉, 〈달과 까마귀〉 출품. 7월 천일백화점 개관 기념 현대미술작가전에 출품

1955년(40세) 1. 18. ~ 1. 27. 서울 미도파화랑에서 의회보사 주최, 문학예술사 후원으로 개인전 개최. 〈길 떠나는 가족〉, 〈소와 아동〉, 〈흰소〉, 〈가족과 비둘기〉, 〈도원〉, 〈싸우는 소〉, 〈닭〉 등 45점 전시. 이때 은지화도 발표. 5월 대구의 미국 공보원에서 전시회 개최. 7월 성가병원에 입원

1956년(41세) 9월 6일 영양실조와 간염으로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 타계. 무연고자로 취급되어 3일간이나 시체실에 방치 되었다가 뒤늦게 고향친구 김이석(1914~1964 소설가)에게 발견되었다. 서울 홍제동 화장장에서 화장되어 반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히고 반은 일본의 가족에게 보내져 부인이 야마모토가의 묘에 합장하였음

· 관련자료 2 <이중섭 소 그림 관련>

- 자료출처: 김순철, 2010, 『통영과 이중섭』, 도서출판 에코통영, 41p.

에서만 생육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비파도>는 통영에서 그려졌을 개연성이 높다. 이 그림은 현재 충북 옥천의 '정지용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물론 유강렬이라는 선지자와 나전칠기가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듯 풍광이 아름답고 기후가 온난하며 먹거리가 풍부하고 문화예술 자산을 고루 갖춘 통영으로 이중섭이 찾아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중섭은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이후 그 해 12월 가족과 조카 영진을 데리고 원산에서 부산으로 피난 왔다. 이듬해인 1951년 1월 가족을 이끌고 제주도 서귀포로 피난하여 생활하다가 그해 12월 다시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오산학교 동창 김종영의 도움으로 범일동 산마루에 단칸방을 얻어 유엔군 부대의 부두 노동 등을 하면서 생활하다가, 이듬해인 1952년 봄 통영의 도립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소장 양성봉도지사, 부소장 김봉룡)교육 주임(책임자)으로 있던 공예 미술가 유강렬의 권유로 통영으로 와 양성소에서 기거하면서 1954년 봄까지 약 2년 가량 모처럼 평온하고 안락한 생활 속에서 그림에 열중하였다.

김동욱 전 국회의원은 한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용주, 이중섭 두 화백은 동경에 있는 일본 미술학교에서 수학한 바 있는 선후배였기 때문에 피난시절 생활고로 부산 부두에서 노무자 생활까지 했던 이중섭이 유강렬과 함께 김용주를 찾아 통영

으로 오게 되었다.

이중섭이 통영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은 초대 충무시장이었던 제 아버님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김용주 화백으로부터 들었다. 제 아버님은 1916년생 동갑이신 이화백과 빨리 친숙해졌고 생활비도 대주고 병원비도 마련해주었다.

1953년 향남동 성립다방에서 개인전을 가졌는데 김용주의 부탁으로 저희 선친께서 후원자 역할을 했고, 김용제 등 재력가들에게 권유하여 작품을 구입하도록 했다. 그때는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라 아무도 그림을 살 엄두를 내지 못했던 시기다.

명정동에 있는 저의 집 안방 앞에는 이중섭 화백의 <소>그림이 걸려 있었고 응접실에는 남망산을 그린 풍경화도 있었다. 담배 은박지에 그린 그림도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집안사람들의 부주의로 멸실되고 말았다.

이중섭은 평생 소를 그렸는데 그가 마지막 통영을 떠나면서 제 부친께 그동안 신세를 많이 졌다며 선물한 그림이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소>그림인데 지금은 남망산 그림과 함께 서울 성북동 소재의 간송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제 아내를 위해 아버지께서 결혼기념으로 주신 두 장의 그림을 나의 불찰로 허망하게 간송미술관에 넘긴 것은 나의 일생에 있어 가장 큰 실수였다."고 고백한

- 자료출처: 김순철, 2010, 『통영과 이중섭』, 도서출판 에코통영, 152p.

풍경화 이외의 작품

풍경화 이외 통영에서 그림 것으로 알려진 작품은 <흰소3>, <달과 까마귀>, <도원>, <부부1·2> 등이다.

이중섭이 가장 많이 다룬 소재는 단연 소라고 할 수 있다. 소를 이중섭의 자화상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그의 어머니로 은유되는 대지의 상징적 존재로 풀이하는 이도 있다. 그의 강인한 외모와 수줍은 내성은 소의 면모를 방불케 하는 점이 많다. 이중섭이 남긴 소를 소재로 한 작품은 <흰소>, <황소>, <싸우는 소>, <소와 아이>, <소와 새와 계>, <길 떠나는 가족> 등이 있다.

특히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흰소3>은 통영시절 그린 작품으로 이중섭이 그린 '소' 중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화가 전혁립은 인터뷰를 통해 "김기섭이 소 한 마리를 몰고 갔다"고 증언 하였고, 박종석 화백은 "그 <흰소>는 1962년 서울 조선호텔 앞 중앙공보관에서 열렸던 '제1회 한국현대미술가 유작전' 때 김기섭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아 내가 직접 가져갔다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고 증언 한 바 있다.

풍경 속의 새로 <달과 까마귀>는 통영에서 제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보름달을 배경으로 세 가닥 전신줄에 모여드는 까마귀들을 그린 것이다. 오광수의 『이중섭』의 그림 47에는 <달과 까마귀, 1954년 작>이라는 설명이 있지만 이에는 몇 가

지 의문점이 있다. 이 작품은 1953년 성림다방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전시된 그림으로 청마가 이 그림을 본 후 1967년 현대문학에 '괴변 - 이중섭의 화 달과 까마귀에'라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이중섭이 아내에게 보낸 1954년 6월의 편지에는 "6월 25일부터의 대한미술협의회와 국방부 주최의 미전(경복궁 미술관에서 열림. <닭>, <소>, <달과 까마귀>를 출품해 큰 호응을 얻었다.)에 3점(10호 크기의)을 출품했소. 모두 100호, 50호 크기의 작품들인데 아고리의 작품 3점이 제법 좋은 평판인 것 같소."라고 한 것을 보아 이 작품은 1953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보는 것이다.

다시 오광수의 작품 해설을 들어 보자. "이 작품은 극히 평범하다. 달밤의 까마귀란 설정에서도 별다른 의미를 찾기는 곤란하다. 그야말로 풍경적인 한 단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중섭이 다루었던 새들은 비둘기를 포함해 주로 평화나 환희를 상징하는 길조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까마귀를 다루었다는 것이 다소 이채롭다.

작품의 설정은 극히 간결하다. 둥근 달을 배경으로 수평으로 그려진 세 개의 전선이 풍경의 전체를 가늠하고 있으며 그 위로 다섯 마리의 까마귀가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중섭의 대부분의 작품이 그렇듯이 여기서도 극히 간결한 터치에 의해 까마귀들이 묘출되고 있다. 마치 갈필로 문지른 듯한 일획으로 까마귀의 여러 동작을 순식간에 포착하였다. 달빛을 받은 까마

· 관련자료 3

- 자료출처: 통영시, 2014, 『예향통영』, 79p, 325p.

그때가 1952년 늦은 봄이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부인 이남덕과 두 아이를 일본으로 보낸 이후였다. 1954년 봄에 통영을 떠났다고 하니 통영에 머문 기간은 지금까지 알려진 6개월 보다 훨씬 긴 햇수로는 약 2년간이다.

이곳은 1910년 경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 독립통영공예학원 자리로 유강렬의 권유에 의거 이중섭이 김경승, 남관, 박생광, 전혁림 등과 함께 기거하면서 작품활동을 했던 곳이다.

시내 오거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건물 앞 도로 사거리에서 남쪽 바다 방향으로 50m정도 가면 왼편에 유료주차장이 있다. 주차장 옆 건물이 이중섭이 머물던 곳이고 표지석을 세워 놓았다. 또한 그 건물 담장에는 이중섭의 대표작 <소>의 그림이 붙어있어 눈길을 끈다.

1953년 통영에서 한 겨울을 지낸 화가 이중섭이 항남동 성림(聖林)다방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황소>, <부부>, <가족>, <달과 까마귀>, <도원>을 비롯하여 <초가가 있는 풍경>, <복사꽃이 핀 마을>, <세병관 풍경>, <통영 앞바다>, <통영 풍경>, <통영 유원지>, <푸른 언덕> 등이 통영시절 남겼던 걸작들이다. <남망산 오르는 길이 보이는 풍경>, <충렬사 풍경>, <달과 까마귀> 등의 작품이 전시된 성림다방에 들린 청마는 전시작품 중에서 특히 <달과 까마귀>에 매혹되어, 훗날 시 「괴변(怪變)—이중섭화 달과 까마귀(현대문학, 1967, 2)」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중섭은 통영에서 대표작 <황소>, <부부>를 비롯한 <선착장을 내려다 본 풍경>, <남망산 오르는 길이 보이는 풍경> 등 수많은 풍경화를 그렸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이중섭은 본디 술을 좋아 하기도 했겠지만 그 암울했던 시기에 지식인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말술을 마시고도 끄떡없는 청마와도 대작을 하는 등 통영에서 이중섭은 지인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기 위해 사전에 곧잘 만나는 장소는 성림다방이었다.

통영으로 피난 온 이중섭을 산양면에 있던 그의 집 사랑채에서 이태규와 함께 기거하게 하며 나중 성림다방에서 열었던 이중섭의 개인전을 준비하게 도와주기도 한 김용주가 말끔한 차림에 베레모와 선글라스를 끼고 이곳에 나타나면 어느새 운기가 돌았다고 하니, 그들의 예술적 풍도가 어떠했는지 느껴진다.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항남동은 여객선부두가 있어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고 특히 뱃사람들로 인해 술집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번창하였다. 그 많은 술집 중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나오는 안주와 색시가 있는 술집도 많았다. 특히 항남동은 통영의 명동으로 거의 모든 상가가 이곳에 밀집해 있었고 '도깨비 골목'이라 하여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제 세월은 무심히 흘러 이중섭과 청마와 김용주도 가고, '도깨비 골목'도 가고, 통영 예술인들의 정신적 안식처이자 만남의 장이었던 '성림다방'이란 상호도 사라지고 그 위치의 건물엔 다른 상호의 점포가 들어서 있다.

<붙임2>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사용하지 않음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
2. 용 도 : (현) 사용하지 않음 (원) 교육시설
3.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항남3길 25(항남동 241-1)
4. 소유자 : 통영시 (주소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
5. 시설물 개요
 - 설 계 : 미상
 - 시 공 : 미상
 - 구 조 : 목조, 기와지붕
 - 제작년도 : 1936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 수량 및 면적 : 1동, 건축면적 169.56㎡ 연면적 306.49㎡
 - 층수(높이) : 지상 2층
 -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의 건축물 변화 (건축물대장)

표1: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의 건축물 변화

	층수	용도	건축면적	구조	비고
1	1층	근린생활시설	153.36㎡	목조구조/ 일식기와지붕	1936년 건립추정
	2층	근린생활시설	136.93㎡		
2	1층	근린생활시설	16.2㎡	블록조 슬라브	1984년4월 건립추정
합계			306.49㎡		

6. 조사자 의견('20.8.4.)

<문화재위원 ○○○>

1) 개요

- 조선시대 통제영의 12공방의 맥을 잇는 나전칠기 공예의 현장이다. 해방과 전쟁기를 거치며 본 건물은 나전칠기 전문 공예교육이 실시된 곳으로, 근현대 공예의 효시이자 산실로 의미가 크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의 외관에서 일제강점기 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나, 내부는 상업시설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변형되어, 나전칠기 기술자 양성소로 사용되던 시절이 내부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음.



외관



측벽 박공상세



후면 전경



변형된 외부공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외부

- 상업시설로 전용되면서 전면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으나 지붕의 선과 측면에서 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 외관에서 확인되는 지붕의 전면과 측면은 전형적인 일식건축의 의장적 장식과 지붕의 곡선에서 일본건축의 의장적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후면에는 증축된 모습이 확인됨

○ 내부

- 전면의 1층과 2층의 내부공간은 타 용도로 전용되면서 원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음.
- 후면에 위치한 부속채의 2층에는 원 모습의 일부가 남아있음.
- 노출된 천정 속에서 목구조 지붕구조의 일부가 확인됨.
- 1960년 12월 25일자 마산일보에, ‘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에에서 수강생 60여명이 만든 182점의 예작품을 동교 강당에서 전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음. 이 기사에 따르면 현 건물 2층이 강당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음. 이 기사의 내용과 공간구조가 일치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후면 부속채 2층



천정속 모습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통영시 구시가에 위치하며, 통영시의 보존과 활용의지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해볼 때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하다고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삼도구군 통제영이 설치되면서 군사용 군수품과 임금에 바치는 진상품을 제작하는 공방이 성하면서 통영이 공예문화의 메카로 자리잡았고, 통영이 전통 공예문화의 중심이 되었음.
- 통영시에서는 조선후기 이후 통영시의 역사적 정체성의 핵심인 나전칠기를 중심으로하는 공예문화의 현장과 역사적 장소의 보존과 활용에 적극적이어서, 본 건물이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되었다는 역사의 현장 보존과 활용에 매우 적극적임. 따라서 현재의 통영시 계획은 이러한 목적하는 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이며, 향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이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를 개선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 건물이 위치한 곳은 통영시내의 변화가로 통영시의 활용계획이 본 계획에 오르면 계획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통영시의 의지가 적극적인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일제강점기의 건축물은 다수 존재하고 일부는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으나, 지역의 도시가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근대유산은 많지 않음.
- 본 근대유산은 건축적 가치보다는 본 건축물이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가능한 사회사적 가치가 높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여타 일제강점기 유산과 차별화된 가치가 있음. 단, 나전칠기 기술인양성소로 사용된 기간에 대한 확인은 필요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통영시의 문화적 정체성이 나전칠기 전문가 양성소의 역사성을 계승하기 위해 현재의 내부공간을 양성소로 사용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시의 외관 등에 대한 충분한 고증을 거쳐 외관 등을 회복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음. 내부공간은 신축 당시보다는 양성소로 사용하던 시절의 흔적에 대한 정밀조사과 관련자 증언을 통한 고증을 통해 진정성 있는 복원이 필요함.

8) 기타

- 통영 나전칠기 기술원양성소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1936년 이전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로서 신축 당시에는 청루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1952년~1965년 사이에 경상남도립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됨. 목조 2층 규모의 건물로 지붕은 기와로 마감함.
- 한국전쟁기 화가 이중섭이 머물렀던 장소로서 통영 지역 뿐만 아니라 근대기 우리나라 공예 산업 및 문화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목조 2층의 ‘ㄱ’자형 건물로 남쪽에 위치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본채를 형성하고 북쪽 부분이 본체에 결합된 부속채의 형식을 띄고 있음.
- 가로에 면한 남동쪽 방향의 박공면에 붉은 색 목재를 수직과 수평으로 붙여 조형적이며 상징적인 중심성을 부여함.

- 남측 부분은 위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기와 지붕으로 특징적인 외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넓은 내부 공간을 형성하고 회벽 등으로 외벽을 마감함. 북측 부분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2층의 내부 공간은 주거 공간이 형성되어 있으며, 불박이 벽장이 형성된 실내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음.
- 남측 부분의 개구부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되어 원형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남측 부분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의 구성과 내부 벽체, 천장 등의 마감이 변형되었고 개구부의 구성 및 재료 등이 변형된 것으로 판단됨.
- 외벽 재료 역시 많은 부분 변형되었고 부분적으로 원형의 벽체 구성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됨.
-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 체계 및 기본적인 공간 구성의 체계는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남측 부분의 지붕 구조와 박공면의 구성 등도 부분적으로 원형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의 주변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 문화재 보존 환경이 양호한 편은 아니지만 지자체에서 건축물을 매입한 상태로 충분히 보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와 관련된 시설로서의 특성과 화가 이중섭이 관련되어 있어 보존관리 및 활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지자체가 건축물의 역사성을 인지하고 보존 의지를 갖고 있어 실현 가능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분류상 교육시설이나 일반적인 학교 등의 교육시설과는 구별되는 시설로서 특성이 있음.
- 교육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상대적으로 넓은 내부 공간을 갖는 남측 부분과 거주 공간으로 활용된 북측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에 결합된 형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는 건축물의 공간 구성과 개구부 구성, 내외부 마감재료 등 많은 부분이 변형되었으나 근대기 지역의 대표 산업이었던 나전칠기 및 화가 이중섭과 관련된 건축물로서 등록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존하는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남측 부분 지붕을 중심으로 한 외관의 보존이 필요함.

8)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구 경상남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및 연혁

- 일제강점기 청루로 사용
- 1952~1965년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로 사용,
- 한국전쟁기(1952~1954) 화가 이중섭이 기거하던 곳
- 1962~1969년 충무시 소유권이전
- 1969년 9월 : 소유권 민간이전
- 조선시대 통제영을 위한 십이공방의 맥을 잇는 통영시에 위치한 전문 공예 교육이 실시되었던 장소로 한국 근현대 공예예술의 효시이자 산실의 역할을 한 장소라 할 수 있으며, 근대기 건축의 형태적 요소와 구조적 특성이 남아 있는 유산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물 1 : 290.39㎡
 - 전면도로에 면한 외관, 좌측면의 대부분과 1, 2층 내부공간의 경우 변형되어 교육시설로서의 원형을 확인할 수 없으나, 목구조와 지붕,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 등에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목구조 건축의 원형 모습이 남아 있으며 일부 외벽재료 및 디테일(비늘판벽)에서도 원형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박공지붕 형태와 일식기와를 갖는 전형적인 일본식 건축물의 외관이 잘 남아있음.
- 건물 2 : 16.2㎡
 -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건축물로 1984년 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블록조 슬래브 구조로 추정되나 증축부분에 대한 조사가 불분명한 상태임.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6년 건축 당시 청루로 사용
- 1940년 방덕표(1936년 정미소 경영, 1940년 주식회사 통영상사 경영)가 토지 소유
- 1945년 전대엽 / 1946년 김찬규 소유
- 1952~1962년 경상남도 나전칠기기술원 양성소
- 1962~1969년 충무시 소유권이전
- 1969년 9월 : 소유권 민간이전
 - 영업소, 위락시설, 게임제공소, 식당 등 상업시설로 용도변경후 증 개축 (도로에 면한 외관 및 1, 2층 내부공간 등의 변형)
- 2019년 10월 : 통영시 소유

4)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나전칠기교실 운영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
 - 2011년 통영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전칠기교실' 수업공간으로, 나전칠기 역사 및 작품전시공간으로 활용을 계획하고 있음.

- 본 유산의 경우 통영시의 전통공예산업인 ‘나전칠기’ 교실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연관성을 검토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현재 인근 지역의 경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본 계획을 추진하는 바 실현가능성 및 효과가 기대됨.

5)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통영의 근대기 역사와 문화, 예술의 흔적이 남아있는 근대건조물로서 보존·활용하여 공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인근 지역의 경우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와 연계하여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동시기 유산건축물과의 비교가 필요하나 제출자료의 부족으로 판단하기 힘들.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물 1의 경우 내부구조 및 마감은 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 사용될 당시의 원형과 변형이 되었으나 목구조 및 지붕구조 및 기와형식의 원형이 남아 있어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기타

① 등록범위 문제

- 등록명칭의 문제 : 본 유산의 경우 교육시설(나전칠기기술원양성소)로서의 원형이 대부분 훼손되어 있어 등록시 명칭 및 원형 복구 가능성여부에 주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등록범위의 문제 : 1936년 최초 건립된 290㎡의 부분과 1984년 4월 증축된 16.2㎡ 부분의 구분이 필요하며 등록 범위는 1936년 최초 건립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보호구역의 문제 : 현재 건축물의 경우 건물1과 건물2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를 구분하여 건물1 부분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토록하고 문화재구역으로는 통영시 해안로 515(항남동 241-1) 대지 전체 258㎡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② 건축물 주요부분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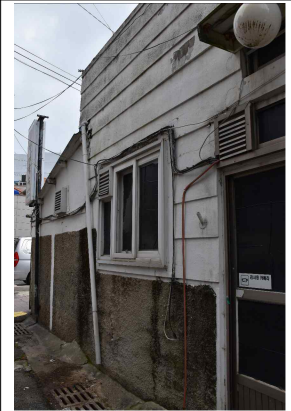




우측면 전경



후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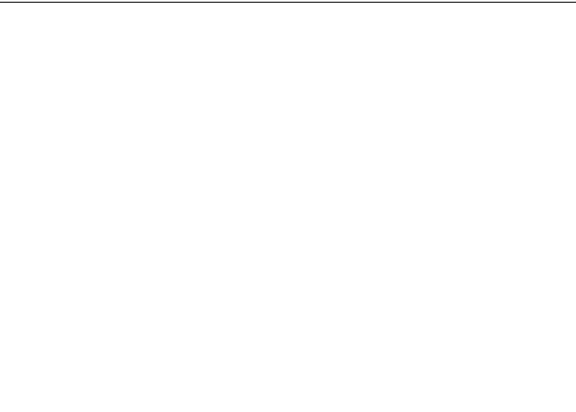
좌측면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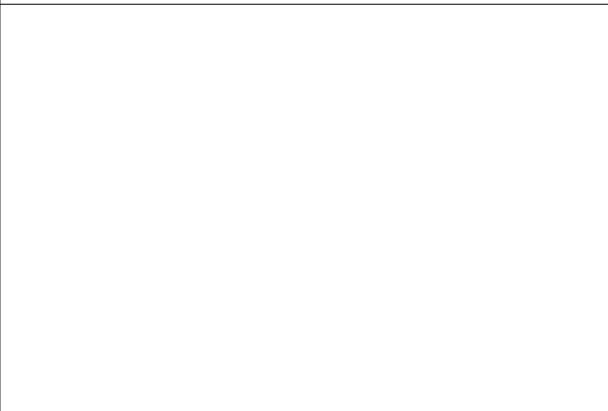
2층 상부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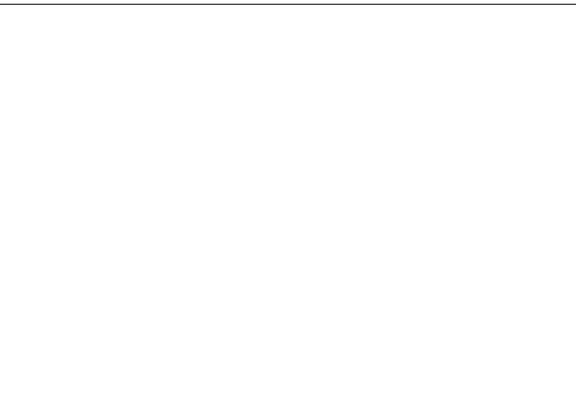
배면 전경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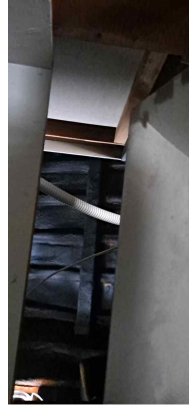
배면 전경 디테일



1층 내부



2층 내부



벽체, 천정부분 디테일



2층 상부전경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한 4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장	<p>(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청장</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원(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 세부내용 : 수목이식 및 제거, 시설물 이설 및 철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 이식 : 느릅나무 등 10종 1,134주 - 수목 제거 : 느티나무 등 4종 32주 - 시설물 이설 : 평의자 등 6종 조경시설물 - 시설물 철거 : 계단 등 7종 조경시설물 <p>(3) 허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간</p> <p>(4)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 <p><문화재위원 ○○○(“20.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사적 구역을 발굴조사하기 위해 기존 수목과 조경 시설물을 해체, 철거, 이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과거 서대문형무소의 원형 고증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허가	'20.9.28.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업내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장	<p>(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청장</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원(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 세부내용 : 장애인 경사로 4개소 설치 등 <p>(3) 허가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간</p> <p>(4)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0.9.8.) <p><문화재위원 000·000, 전 문화재위원 000('20.9.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식 경사로계획안은 고정식과 비교하여 볼 때, 해당 문화재의 특성 및 외부 공간 활용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이동식 경사로는 시작부의 접이식 구성 및 재료계획은 사용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나 경사도는 기존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보행 약자이 편의성(전동휠체어 등)을 고려하되, 외부공간의 활용도 및 사적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계획할 것 	허가	'20.9.28.
사적 제284호 구 서울역사	서울 중구	(재한동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장	<p>(1) 허가 받는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 <p>(2) 허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28 (당해문화재) ○ 세부내용 : 균열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빈실 상부 파라펫 균열 보수 <p>(3) 허가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29. ~ '21.09.30. <p>(4)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의견 <p><문화재위원 000('20.9.2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빈실 내부 누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이고 외벽 마감면 일부를 보수하는 경미한 범위의 공사로 판단됨. 보수 마감면 등은 기존 기법대로 함 	허가	'20.09.29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24호 서울 구 서대문 형무소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구청장	<p>(1) 허가 받는 자 : 서대문구청장</p> <p>(2) 허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위치 :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일원(서울 구 서대문형무소 내) ○ 세부내용 : 제81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장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가설 무대(6.5m*6.5m*0.15m) - 음향장비 스피커 등 설치 - 영상 및 발전차량, 기타 행사장비 등 <p>(3) 허가기간 : '20.11.15.~11.17.</p> <p>(4) 허가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로 인한 당해 문화재의 가치를 저해·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함 ○ 행사로 인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함 ○ 행사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방을 위하여 질서유지 요원을 충분히 배치 운용하도록 함 ○ 행사준비, 진행, 완료 단계까지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함 <p>(4) 참고</p> <p><근대문화재과 검토 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행사는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이로 인한 문화재 훼손은 현재까지 발생되지 아니함 ○ 따라서, 행사 개최로 인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조건부 허가	'20.10.23.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9명 / 원안접수 9명